





### 이용자

- 06 **박유진** · 봄봄봄, 돌봄 왔어요~  
**아이돌보미**
- 12 **조숙희** · 야, 니도 아이 돌봄 꼭 해봐라.

### 종사자

- 17 **유진희** · 밤하늘의 별빛, 태양 아래 나무 그늘



### 이용자

- 24 **한명섭** ·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같이 자라는 기쁨
- 28 **김은선** · 하늘에 계신 엄마의 두 번째 선물, 아이돌봄서비스
- 33 **장나** · 다문화 엄마의 잊지 못할 축복
- 37 **박경아** · 아이돌봄서비스로 찾은 보통의 일상

### 아이돌보미

- 43 **전애정** · 아이가 가르쳐준 시간
- 47 **박금선** · 돌봄은 내 삶, 아이들과 함께한 16년
- 51 **정태옥** · 스케치북은 아이사랑을 싣고



### 종사자

- 55 **민기동** ·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돌봄 올타리
- 59 **김혜승** · 마음과 마음이 닿는 참 고마운 서비스





### 이용자

- 66 **이용성** · 당연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71 **유해진** · 세 아이 엄마의 미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피워낸 행복  
75 **박성수** · 내일을 꿈꾸게 한 아이돌봄서비스  
78 **이선미** · 더디 가도 함께 가는 우리  
82 **문하은** ·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함께할 선생님

### 아이돌보미

- 86 **조미나** · 아이돌봄, 내 삶을 성숙하게 빚은 행복한 일자리  
90 **오경숙** · 두 시간의 기적  
93 **남위자** · 잣더미를 딛고 다시 웃는 날까지  
96 **이한순** · 홍보 요정으로의 출발

### 종사자

- 100 **고영임** · 17년 여정을 함께한 아이돌봄  
104 **이윤주** · 그때, 네가 이랬었네  
108 **정숙영** · 내게는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가정에 봄을 물고 오신 돌보미선생님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_경기도 광주시아이돌봄센터 이용자 박유진





대  
상

이용자

박유진 · 봄봄봄, 돌봄 왔어요~

아이돌보미

조숙희 · 야, 니도 아이 돌봄 꼭 해봐라

종사자

유진희 · 밤하늘의 별빛, 태양 아래 나무 그늘





“봄봄봄, 돌봄 왔어요~”

박유진

경기도 광주시아이돌봄센터



회사에서 재무 업무를 담당하고 있던 나는 대체자를 찾기 어려워 출산 후 서둘러 복직해야 했다. 가까이에서 육아를 지원받기가 어렵다 보니 쪽쪽이를 물고 있는 6개월 된 첫째 아이를 눈물을 머금고 사설업체 도우미 분에게 맡겨야만 했다. 5년 차 대리 월급에 영어 종일 돌봄 비용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었다. 게다가 사설업체 분들은 개인이 업체에 등록한 회원이지 업체에서 돌봄을 위해 관리를 하지 않고 있어 종잡을 수가 없었다. 개인 사정에 따라 이런 건 하기 어렵다고 하고, 오신다고 했다가 갑자기 일이 생겼다며 못 오신다고 하는 등 변동이 많아 매일 외출타기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그러던 어느 날 실낱 같은 희망의 소문을 듣게 되었는데, 그게 바로 아이돌봄서비스였다. 우리집은 정부지원금을 일부 받을 수가 있어서 경제적



첫째 생일날, 등원길에 사진찍어 보내주신 축하메세지

부담이 덜할 뿐 아니라 서비스 항목도 체계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었다. 처음에는 방법을 몰라 혼매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위태로운 상황은 줄어들었고, 외출타기 삶에서 리무진을 타는 인생으로 바뀐 듯한 편안함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안정감을 되찾은 우리 부부는 둘째도 계획하게 되었다. 둘째 출산 후 시간제 서비스를 이용하였는데, 둘째 아이가 기어 다닐 때부터 돌봐주셨던 선생님이 건강상의 이유로 갑자기 아이돌보미를 그만두시게 되었다. 아이가 기고, 일어서서 걷기까지 함께 해주셨던 분이라서 아쉬움이 컸다. 어린이집에 등원시키는 마지막 날에 선생님은 눈물까지 훔치며 아이들의 건강을 기원해 주셨다.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지금도 가끔씩 아이들 사진을 보내드리며 연락을 주고받고 있다. 그런데 이별의 아쉬움도 잠시, 막막한 현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다. 당장 애들을 돌봐줄 선생님을 구하지 못해 발을 동동 굴러야 했고, 친정엄마 찬스까지 쓰며 퇴사만큼은 하지 않으려 벼텨 보았지만 결국 과장 진급의



돌봄선생님과 하원길에 예쁜 꽃을 발견했다  
며 인증샷

꿈을 접고 물러서지 않을 수 없었다.

미래의 가정이 경제적으로 안정되려면 맞벌이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행복도 중요하니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선택하자고 결론지었다. 남편도 출장이 많은 직장을 그만두고 아이들과의 시간을 위해 이직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렇게 우리 부부는 일분일초를 아끼고 아이들에게 모든 시간을 쏟으며 정신없는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지금의 돌보미선생님과 연락이 닿게 되

었다. 너무도 반가운 마음이 들었지만 두 명의 남자아이에 지역도 위치상 선호지역이 아니다보니 짧은 인연이 되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면접서비스를 이용하였다.

선생님은 처음 연락한 날도 친절히 전화를 받아주셨을 뿐 아니라 약속한 전날까지 시간과 장소를 확인하는 꼼꼼함을 보여주셨다. 그리고 약속 당일, 아이돌보미 신분확인이 가능한 목걸이를 착용하고 우리집을 방문해 주셨다. 처음 보는 아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며 어떤 걸 좋아하는지 묻고, 앞으로 잘 지내보자며 인사도 하셨다. 신기하게도 아이들은 돌보미선생님 옆에 앉아 낯가림 없이 장난감을 보여주었고 선생님은 아이들을 주의 깊게 관찰하며 자연스럽게 소통하였다.

나는 망설임 없이 돌봄을 부탁드릴 수 있었고, 다시 일도 시작하게 되었

다. 그러나 경력 단절에 대한 두려움과 나의 꿈 때문에 아이들을 긴 시간 동안 어린이집에 맡기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걱정이 마음 한켠에 돌덩이처럼 자리잡고 있었다.

그런데 선생님은 그런 내 마음을 어찌 아셨는지 둘째 아이를 평소 하원 시간보다 일찍 데리고 나와 어린이집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요리조리 숲길로 산책도 하며 엄마가 평일에 해줄 수 없는 놀이를 해주었다. 둘째 아이는 또래들보다 말을 잘하는 편이 아니었는데, “선생님 좋아!” 하면서 일주일 만에 감정을 표현하였다. 최근에는 자기가 좋아하는 놀잇감을 따로 챙기면서 선생님과 놀 거라고 하며, “에버랜드 퍼레이드에 선생님도 같이 가자~.”라는 말까지 한다. 아이가 선생님을 얼마나 좋아하는지 저절로 느껴질 정도이다.

선생님은 얼마나 시간약속을 잘 지키시는지 모른다. 더욱이 지난 겨울에는 폭설이 내려 어린이집에 긴급휴원령이 내려지기도 했는데, 그런 날은 더 이른 아침에 오셔서 내가 출근할 수 있도록 아이들을 돌봐주신다. 그리고 아이들의 몸이 안 좋아 어린이집에 가기 힘들어하는 날에는 한 번씩 집에서 쉴 수 있게 해주면서 쟁겨놓은 점심도 먹여주고 낮잠도 재워주신다. 맞벌이가



형제가 나란히 가방메고 단지 내 숲길따라 산책

정의 아이는 해열제를 들고라도 등원한다는 마음 아픈 주변 이야기와 달리 우리 아이들을 건강 상태에 따라 돌봐주시니 나한테는 친정엄마보다도 더 감사한 분이다. 또 집에서 돌봄을 할 때에는 아이가 심심하지 않도록 자동차 놀이, 그림 그리기, 동화책 읽기 등 아이 눈높이에 맞춰 놀아주고, 어린이집 일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게 꼼꼼하게 아이를 챙겨 주신다. 그리고 매일 저녁, 내가 퇴근하면 그날의 에피소드들을 잊지 않고 이야기해주어서 나는 아이들이 엄마 없는 시간을 어떻게 보냈는지 쉽게 공감하며 안정적인 하루를 마무리할 수 있다.

바쁜 나를 위해 남편도 육아에 많이 참여하고 있지만, 냉장고 앞에 빼곡히 붙여둔 메모들을 선생님도 잊지 않고 체크해 주어서 맞벌이 부모가 깜빡하는 준비물이나 행사도 빠짐이 없게 해준다. 첫째 아이의 영어수업이 있는 날이면 오전에 영어공부를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주고, 미세먼지가 있는 날은 바깥 놀이 대신 색종이와 안전가위 등을 가져와서 어린이집보



설경이 예쁜 날 등원버스를 기다리며

다 더 재밌는 방과후수업을 해주신다. 선생님이 안 계신다면 이런 가정의 평화와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나한테도, 아이들한테도 선생님의 자리는 너무 크고 깊어서 부디 우리와 오래 함께 계셔주길 바라고 있다. 매일 표현해도 부족할 만큼 최고인, 우리 돌보미선생님을 만날 수 있게 해 준 아이돌봄 관계자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다시 돌아보면 참 많은 일이 있었다. 둘이서 행복하게 살자고 다짐했던 그때에 첫째 아이가 생겼고, 첫째를 키우며 힘든 시절에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어 둘째를 계획하게 되었고, 그 사이 퇴직과 이직 등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다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서 안정을 찾았다. 아이들과 행복한 시간을 꿈꾸는 대한민국의 많은 새내기 부부와 육아에 지친 엄마, 아빠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꼭 이용해 보시기를 추천드린다.

요즘은 부모 둘만의 역량으로 아이들의 세상을 다 채워주기 어렵다는 것을 아이를 키우며 새삼 다시 깨닫는다. 아이들의 성장과 추억을 공유하고 함께 응원하는 돌봄 전문가가 곁에 있다면 가정의 행복은 두 배, 세 배가 될 것이다. 우리 아이들의 세상을 아름답게 채워주시고, 이 가정에 봄을 몰고 오신 돌보미선생님께 뜨거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야, 니도 아이 돌봄 꼭 해봐라.”

### 조숙희

서울특별시 관악구아이돌봄센터



남편이 지병으로 멀리 간 후 중3, 고3 두 아들을 둔 나는 컴컴한 모래밭의 외기러기가 되었다. 이런 시련이 내게 왜 왔나 싶었고 먼저 간 남편이 원망스럽기까지 했다. 늘 모자를 푹 눌러썼고, 길 가다 많이 울어 눈은 늘 부어올랐다. 위 건강도 급격히 나빠졌고 삶의 의미를 잊어 무기력해졌다.

어느 날, 고개 들어보니 아이들이 내 표정을 닮아있었고 생활비도 바닥이었다. 훌쩍이는 엄마의 뒷모습만 보는 아이들은 어땠을까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당장 이런저런 일이라도 해야 하는 가장이었다. 하지만 떠나온 교직으로 돌아가기엔 늦었고 자신감도 없었다. 울음을 삼키고 학교와 병원 급식 일부터 시작했다. 건강도 쟁기기 시작했다. 내 오랜 친구가 자주 전화를 주면서 이런 말을 해왔다.

“야, 니도 아이 돌봄 꼭 해봐라.”

제도 초기부터 10년 넘게 해왔다며 아이 돌봄이 얼마나 좋은지, 아이들이 얼마나 이쁜지 자주 이야기했다. 하지만 나를 걱정해준 친구의 말이 귀에 들리지 않았다.

‘왜 나한테 이런 말을 하는 거지? 난 교사 출신이라고. 나보고 애를 보라고? 난 아기를 좋아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아이돌봄을 계속 권하는 친구가 너무 야속했고 내 처지가 너무나 부끄러웠다. 그러다 어느 날 인터넷을 슬쩍 찾아보았다. 아이돌보미… 서류 신청을 하고 면접을 보았지만 내가 이 일을 한다는 생각은 안 했다. 양성 교육은 면제되었고 보수교육과 실습을 거치며 생각이 조금씩 달라졌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교만하며 한심하게 살았는가 깨달아갔다.

센터에서 돌봄 연계 연락이 왔다. 자매를 돌보는 일이었다. 6개월을 기다렸다는 간절함을 전해 듣고 수락은 했지만, 막상 두렵고 부담스러웠다. 내가 할 수 있을까? 아기를 다루어본 지 오래 전이고 남의 아이를 맡는 일이 겁났다. 소중하고 작은 아기들인데 어설픈 내가 맡을 수 있을까? 아이들이 나를 안 따르면 어떡하지?

보수는 생각보다 적었고 힘들기만 했다. 어린이집에서 두 아이를 데리고 나와 뛰약볕 길, 빗길 눈길 따라 가방 두 개를 메고 유모차를 끌고 큰 아이 손잡고 비탈길을 올라가야 했다. 다리 아프다며 주저앉는 큰아이를 얼러가며 오가는 차를 피해 안전하게 집까지 데려가야 하는 시간이 흡사 작전 같았다. 온몸은 땀에 젖었고 다리가 후들거렸다. 눈길에 미끄러지고 비에 젖어 아이를 놓치는 악몽도 꾸며 몸서리가 쳐지는 날도 있었다. 이 일을 권한 친구가 또 야속했다. 하지만 말할 수가 없었다. 사설 도우미가 여러 번 바뀌고 바쁜 엄마의 보살핌 시간이 부족해서인지 아이들은 산

만했고 작은아이는 뒤풍이는 걸음이 아슬아슬했다. 놀아주고 먹이고 둘을 목욕시켜 부모에게 인계하고 집에 돌아오는 길은 다시 땀에 절었고 허리도 끊길 듯 아팠다. 너무 서러웠다. 땀 냄새가 날까 봐 버스도 못 타고 1시간 밤길을 걸어 집에 오면 쓰러지듯 잤다. 그만둘까?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다가도 방긋하고 품에 안기며 좋아하던 아가들 미소가 떠오르면 또 잊고 복대를 두르고 달려갔다. 나만 굳게 믿고 안심하고 맞벌이하는 아이 엄마 얼굴을 보면 그만두겠다는 말을 꺼낼 수도 없었다. 조금만 더 버텨보자 생각했다. 조금씩 아이들 눈높이로 바라보는 요령도 생기며 적응이 되어갔다. 내 위주가 아닌 아이의 마음을 따라가니 내게 달려와 안기고 따르게 되고 차츰 나도 안정이 되어갔다. 아이가 말을 배우고 자라나는 모습에 기쁘기도 하였다.

8개월 후 친할머니가 아이들을 맡게 되었다며 헤어지게 되는 날은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서 놀랐다.

그 후, 이른둥이 쌍둥이를 바로 만났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있었고 응급상황을 대비해 맥박과 호흡 체크를 계속해야 했다. 눈도 겨우 떴고 목도 못 가누는 품에 안기도 조심스러운 아주 작은 아기들이었다. 멀리 있는 큰 병원에 주기적으로 산소통을 챙겨 동행해야 했다.

늦지만 어렵게 뒤집고 기고 서고 첫발을 떼던 순간은 박수를 쳤다. 아침 일찍 아기방 문을 살짝 열면, 문 앞에 엎드려 사람을 기다리는 네 개의 눈동자와 마주친다. 나를 보고 활짝 웃으며 어서 안아달라며 물고 있던 쪽쪽 이를 뱉어버리고 두 팔과 가슴을 들어 안아달라 난리가 난다.

새처럼 콩닥거리는 작은 아가들을 차례로 품에 꼭 안으면 가슴 저릿한 응장한 감동에 눈물까지 난다면 남들은 믿을 수 있을까? 나도 전혀 예상

못 했다.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다. 나의 어두웠던 마음이 어느새 꽃밭에서 랄랄라 노래하고 있었다. 2년 가까이 인연을 이어왔다.

“아가들아, 건강하게 자라주어 정말 고맙다. 사랑한다고 이쁘다.”라고 말해준다.

22개월 된 영재 소녀를 처음 만나던 날이 기억난다. 지구본에 빨대를 세워놓고 플래시로 낮과 밤이 생기는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이해했는지 끄덕였다. 쉼 없이 책을 손가락으로 글자를 짚어가며 읽어달라더니 어느 날 혼자서 글을 줄줄 읽어 내려갔다.

너무 신기했다. “왜요?”를 입에 달고 계속 물어오니 집에 오는 길에 목도 아프고 입에서 단내가 날 정도였다. 비나 눈이 오는 날은 두세 시간 동안 창밖 큰 정원을 바라보며 노래도 부르고 이야기도 지어내 들려주었다. 땅속 잠자는 식물과 동물들 이야기는 너무 좋아했다. 무슨 이야기를 하든 책을 읽든 초집중을 한다. 봄 정원에 나가 온갖 꽃들과 풀을 이야기해 준다. 꽃씨도 심고 곤충들도 만났다. 아이가 신나 하고 내가 더 신이 난다. 이 아이의 미래가 너무나 궁금해서 계속 성장 과정을 지켜보고 싶어졌다. 태어난 지 세 달 된 새로운 아기와도 만났다. 품에 안겨 우유를 먹는 모습은 천사 같고 옹알이 수다를 주고받으며 하루하루 달라지는 모습에 감동한다. 이런 아이들을 만나게 된 것에 너무 감사한다. 내 아이 키울 때 바빠서 못 느꼈던 것들이 많다. 내 아이들도 이렇게 들판 사랑으로 키웠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있어 미안해진다.

지금은 돌봄 일정이 빽빽해도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만나게 될 아이들 생각에 마음이 즐겁다. 아이들이 나를 정말 행복하게 만들어준다. 아픈 위도 허리도 싹 다 나았고 우울감을 느낄 새가 없다. 매일 매일 웃는 내가

되었다.

내 삶이 새롭다. 자존심은 내려놓았고 지금 이게 나의 모습이라고 숨기지 않고 말한다. 지금의 이 순간들이 너무 좋다. 힘이 들지 않느냐는 주위의 시선에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하루하루 즐겁게 보낸다. 아이들에게 도움 주려 가는데 내가 힐링이 되어 온다. 시간도 금방 지난다. 지금은 일주일에 여섯 명의 아이들을 돌아가며 만난다. 아주 아주 바쁘게 산다. 보수도 많아졌고 모든 면에서 대만족이다. 수다도 잘 떨고 더는 불행하다는 생각은 안 하게 된 지 오래다. 밝아졌다고 주위에서 이야기해 준다.

내 몸이 마음이 건강해졌다. 건강이 허락되는 한 오래 아이들과 만나고 싶다. 아이들 부모가 만족해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저출산 시대에 내 작은 힘이 보태어진다니 보람도 크다. 권해준 친구에게 늘 고맙다고 말한다.

나는 요즘 또 다른 친구를 계속 설득 중이다.

“야야, 니도 이일 꼭 해봐라. 아이 돌봄은 정말 보람 있고 행복한 일이야...”



## 밤하늘의 별빛, 태양 아래 나무 그늘

유진희

광주광역시 동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봄서비스 연계 근무로 어느덧 5년 차가 되어간다. 5년이라는 시간 속에 많은 이들의 삶이 있었다. 말이 느렸던 아이, 한부모 가정이 된 후 우울증이 생긴 엄마, 많은 업무로 인해 죄책감이 컸던 아빠, 우울증을 극복한 아이돌보미 선생님.... 어쩌면 내가 맡은 일이란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매일매일 다른 사연과 다양한 삶으로 하루하루가 새롭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하고 있던 어느 날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안녕하세요.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는데 가능할까요?”

투박한 남성의 목소리, 뭔지 모르게 차분하면서도 위축된 느낌이었다. 절차를 설명해 주며, 혹시 센터가 따로 알아야 할 사항들이 있을지를 조심스레 물었다. ‘아....’ 하는 소리와 함께 잠시 뜡을 들이며 남성이 입을 열었다.

“저희 아이는 조금 느린 친곱니다. 남에게 불편하게 하지 않아요!. 다만 조금 느릴 뿐이죠. 그리고 전 싱글대디입니다. 혹시 선생님들이 저희집을 싫어할까요?”

순간 당황했다. 사실 아이의 알레르기라든지, 조심해야 할 부분이 있는지 확인차 질문을 했을 뿐인데, 팬스레 상처를 건드린 건가 하여 적잖게 놀랐다. 그게 아니라며, 전혀 문제없다며 최대한 부드럽게 말을 건넸다.

“다행이네요. 저희가 다른 건 다 정상 범주입니다! 불편하게 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이런 상담은 처음이었다. 그저 한부모 가정일 뿐인데, 이미 아빠는 아이에게 죄인, 그리고 아이가 느리다는 이유로 타인에게 죄인이 되어 있는 것 같았다. 정말 사랑이 많은 선생님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떤 선생님이 좋을까? 다정다감한 선생님? 느린 친구라고 하니 아이를 잘 이끌어줄 선생님? 조심성이 많은 아빠이니 말수가 적은 선생님?

어떤 선생님을 배정해야 할지 수도 없이 고민하며 어렵게 한 분을 선정하여 배정해 드렸다. 다행히도 별 탈 없이 이용하고 계셨고, 얼마 후 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위해 아빠에게 전화를 드렸다.

“아버님, 아이돌봄서비스 이용하시는 데에 불편함은 없으신가요?”

“불편함이요?! 무슨 말씀이신가요. 선생님 덕분에 저희 집이 달라졌어요. 온전한 가정을 주지 못해 항상 마음 아팠는데, 이 와중에 업무도 바빠 아이와 많이 대화하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더 느린가 하며 문제의 원인만 찾고 있었어요. 물론 원인은 항상 저였다고 생각했고요. 그런데 선생님이 오신 뒤로 아이가 말을 곧잘 하더라고요. 말수가 적은 게 아니라 대화를 나눌 상대가 없었던 건가 봐요. 사실 전 대부분을 아이가 자는 모

습만 봅니다. 아침에는 출근 준비, 등교 준비로 말할 기회가 없고 부자가 정이다 보니 대화가 적은 건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요즘은 아이가 아침에 짧은 틈을 타 자꾸 재잘재잘 말을 하더라고요.”

아버지는 신이 나서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죄책감만 느끼고 있었지, 어떻게 바꿔야겠다고는 생각 못 했어요. 그런데 아이돌보미 선생님 한 분으로 모든 게 바뀌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있었고 말투는 힘이 있는 것이 예전과는 확연하게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 사람으로 인해 한 가정의 삶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을 체감하는 순간이었다.

그리고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요즘 활동에 불편함은 없는지 전화를 드렸더니,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되레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 아이로 인해 요즘 정말 활력이 생기네요. 역시 저는 아이돌보미가 제 천직인가 봐요. 그 아이를 보러 가는 길이 그렇게 즐거울 수가 없어요.”

우리는 한바탕 크게 웃고 대화를 끝냈지만, 서로가 서로에게 빛이 되어 주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꽃향기는 바람의 방향으로만 퍼지고, 한 사람의 선함은 모든 방향으로 퍼진다는 차나카의 말처럼 아이돌보미의 선함이 가정에 빛줄기를 내리고 웃음소리를 만들어 내고 있었다.

누군가의 작은 행동, 작은 말투, 다정한 눈빛만으로 고개 숙인 해바라기의 얼굴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이다.

주말 부부이면서 맞벌이 가정으로 부모와의 시간을 많이 못 보내는 아이

가 있었다. 퉁하면 선생님을 때리고, 모진 말을 하고, 마음의 문 마냥 문을 쾅 닫고 나오지 않는 아이였다. 이유 불문하고 “싫어, 미워, 오지 마.”라는 말을 어느 말보다 많이 하던 아이였다. 그런 아이를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항상 안쓰러워하셨다. 너무 속이 상한 날에는 전화를 주시며, 우리 아이가 너무 안쓰러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까? 물어보시곤 했다.

그렇게 아이에게 맞기도 하고 모진 소리를 들어도 그 선생님은 오로지 아이의 마음만을 보고 계셨다.

어느 날은 아이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한다.

“우리 ○○이는 반대로 말하는 버릇이 있구나? 선생님은 사실 반대로 말하는 ○○이의 마음을 알고 있단다.”

아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다.

“우리 엄마 아빠는 모르시던데 선생님은 어떻게 아셨어요? 사실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서 매일 반대로 나쁘게 말을 했어요. 나를 돌봐주지 않는 건 사랑하지 않는 거잖아요?”

선생님은 아이의 말에 한 대 맞은 것처럼 적지 않게 놀랐다고 하셨다.

물론 아이 마음이 아파 보였지만, 그 상처의 단어를 직접 들으니 가슴이 아렸다고 하신다.

그 뒤로 선생님은 더욱 이 아이를 잘 돌봐야겠다는 마음이 들었고, 주기적으로 아빠 엄마와 전화 통화를 하며 아이에 대해 소통했다.

“어머니, 아침에는 아이와 날씨 이야기를 해보는 건 어때요? 아버지, 주말에 아이와 단둘이 데이트를 해보는 건 어때요?”

다행히도 엄마 아빠는 선생님의 의견을 존중했다.

어느 날 아이는 아무래도 엄마가 자기를 사랑하긴 하는 것 같다고, 어제

는 회사도 안 가고 아침부터 이것저것 물어보았다며 세상을 다 가진 표정으로 이야기했다고 한다.

“OO아, 엄마 아빠는 너를 정말 많이 사랑한단다. 사실 저렇게 바쁘신 것도 너에게 더 가치 있는 것을, 너에게 더 좋은 것들을 주고 싶어서 그러신 거란다. 다만 부모님이 엄마 아빠가 처음이다 보니깐 표현 방법을 모르셨대. 그런데 이제는 마음 표현하는 걸 열심히 배우고 가득가득 표현하실 거래!”

“아! 엄마 아빠가 몰랐던 거구나. 선생님 그동안 제가 선생님 밉다고 해서 죄송해요.”

선생님은 아이와 나눴던 대화를 전해주면서 울먹이셨다. 선생님은 아이의 마음뿐만 아니라 한 가정을 치유해 주고 계셨던 것이다. 이후로 부모님은 일을 줄이고 주말에 아이와 시간을 더 가지려고 노력하였다. 사랑하는 방법을 몰라서, 표현하지 않아도 전달될 거라는 잘못된 믿음으로 닫혔던 아이의 마음은 이렇게 활짝 열리게 되었다.

누군가 아이돌봄서비스가 뭐냐고 물어본다면, 나는 ‘어두운 밤하늘의 별빛과 같고, 뜨거운 태양 속 나무 그늘 같다’고 표현하고 싶다.

업무를 하다 보면 지칠 때도 있다. 수없이 많은 이들의 이야기를 듣고, 때로는 모진 말로 상처를 주는 이들도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일을 멈출 수 없는 이유는 그보다 더한 가치가 이 안에 있는 까닭이다. 그 누군가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빛을 기다리고, 삶의 힘겨움 속에서 쉴 그늘이 필요하니까 말이다.

돌봄은 나에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무게감 있는 일이고,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을 활하게 밝혀주는 고마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를 통해 따뜻한 기억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정성껏 돌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아이돌봄센터 아이돌보미 박금선





## 우수상



### 이용자

**한명섭** ·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같이 자라는 기쁨

**김은선** · 하늘에 계신 엄마의 두 번째 선물, 아이돌봄서비스

**장나** · 다문화 엄마의 잊지 못할 축복

**박경아** · 아이돌봄서비스로 찾은 보통의 일상

### 아이돌보미

**전애정** · 아이가 가르쳐준 시간

**박금선** · 돌봄은 내 삶, 아이들과 함께한 16년

**정태옥** · 스케치북이 쌓일수록 보람도 늘어가는 중

### 종사자

**민기동** ·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돌봄 울타리

**김혜승** · 마음과 마음이 닿는 참 고마운 서비스



## 소리 없는 세상에서 같이 자라는 기쁨

### 한명섭

서울특별시 강남구아이돌봄센터



우리 가족은 조금 특별하다. 아이 엄마는 청각장애가 있다. 그래서 나는 아기가 태어났을 때, 벅찬 기쁨만큼이나 걱정도 컸다. 엄마는 누구보다 아기를 사랑하고 잘 키우고 싶어 했지만, 낯선 육아의 세계는 그 누구에게도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처음부터 ‘소리 없는 세상’에서 아이를 돌봐야 하는 엄마에게는 더 큰 용기와 준비가 필요했다. 나는 그런 아내의 마음을 알기에 더 많이 도와주고 싶었지만, 현실은 말처럼 쉽지 않았다.

우리 아기는 돌을 갓 지난 시기였다. 눈만 마주쳐도 방긋 웃고, 한순간도 가만히 있지 않은 그 시기의 아기. 하루하루 새로운 것을 배우고, 조금씩 세상을 알아가는 모습이 신기하면서도, 그만큼 더 많은 손길과 관심이 필요한 시기였다. 엄마에게는 말로 도움을 요청할 수도, 갑작스러운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할 수도 없는 여러 상황이 부담으로 다가왔다.

가장 어려운 건 ‘울음’이었다. 배고픔, 졸림, 불편함, 심심함.... 아직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아기의 수많은 감정을 구분하는 것은 청각이 불편한 엄마에겐 큰 도전이었다.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기에, 아기가 왜 우는지, 얼마나 울었는지조차 놓치기 쉽고, 그럴 때마다 엄마는 자책하고 눈시울을 붉히곤 했다. 나는 그런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까웠고, 한편으로는 ‘이 상황을 어떻게든 도와줘야 한다’는 막중한 책임감에 눌려 살았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돌봄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임이 컸다. 낯선 사람이 우리 집에 들어와 아기를 돌본다는 것이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엄마의 장애를 이해해 줄 수 있을까? 아기에게 진심을 다해줄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많았다. 하지만 우리에겐 변화가 필요했고, 조금이라도 숨을 돌릴 수 있는 시간이 간절했다.

첫 만남 날, 모든 불안은 눈 녹듯 사라졌다. 돌보미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와 온화한 말투로 인사를 건넸고, 우리 아기에게도 자연스럽게 다가갔다. 무엇보다 엄마의 상황을 이해하고 배려하려는 태도가 인상 깊었다. 말할 때는 입 모양을 또렷이 보여주고, 필요한 내용은 글로 간단히 정리해 주는 세심함까지 보여주었다.

아이를 돌보는 시간은 기대 이상이었다. 단순히 아이를 ‘봐주는’ 것이 아니라, 아이의 성장 발달을 함께 도와주는 전문가였다. 아기의 눈빛, 손짓, 표정을 통해 감정을 읽고, 그에 맞춰 놀이를 유도하는 모습이 인상 깊었다. 그림책을 읽을 때도 아기와 눈을 맞추고, 등장인물의 감정을 손짓과 표정으로 표현하며 아기의 반응을 끌어냈다. 촉감 놀이, 블록 놀이까지 다양하고 체계적인 활동을 하며 아이는 한결 더 밝고 집중력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 갔다.

돌보미선생님은 엄마에게도 많은 도움을 주었다.

“이럴 땐 아기의 이런 행동을 주의 깊게 보면 좋아요.”, “아기의 손짓이 ‘더 해줘’라는 의미일 수 있어요.” 같은 조언들은 엄마가 아이의 신호를 더 잘 이해하고, 주도적으로 육아에 참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가정에 필요한 안전용품이나 육아 정보도 자연스럽게 알려주시면서, 엄마는 조금씩 자신감을 갖기 시작했다. ‘나는 부족하다’는 불안에서 ‘나는 잘하고 있어’라는 긍정으로의 변화. 그건 우리 가족에게 정말 값진 선물이었다.

나 역시 큰 변화를 느꼈다. 이전엔 일터에서 일하면서도 휴대폰 알림 하나하나에 신경이 곤두서 있었고, 혹시 집에 무슨 일이 생기지 않을까 늘 불안했다. 지금은 선생님이 있는 날이면 안심이 되고, 퇴근 후 밝은 얼굴로 반겨주는 아기와, 훨씬 여유로워진 엄마의 얼굴을 볼 수 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나도 모르게 미소가 번진다.

아이돌봄서비스는 우리 가족에게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다. 함께 울고 웃으며 육아의 길을 걸어가는 따뜻한 동반자였다. 엄마는 ‘오늘은 아이랑 어떤 놀이를 해볼까?’ 하는 설렘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고, 나는 혼자 짊어졌던 책임을 나누며 더 많이 듣고 이야기하는 아빠가 되었다. 아이 역시 더욱 안정감을 느끼며, 부모와 돌보미 선생님 모두와 건강한 관계를 쌓아가고 있다.

이제는 우리 가족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 참 뿌듯하다. 예전의 우리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지만, 지금은 서로를 믿고, 아기와 함께 성장하고 있다. 그 시작에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었다. 국가의 따뜻한 지원이 있어 우리 가족은 무너짐 대신 회복을, 두

려움 대신 희망을 선택할 수 있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가정이 이 소중한 서비스를 통해 따뜻한 변화를 경험  
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우리처럼, 육아가 두려움이 아닌 ‘같이 자라는 기  
쁨’이 되기를.



## 하늘에 계신 엄마의 두 번째 선물, 아이돌봄서비스



김 은 선

대구광역시 수성구아이돌봄센터

### 친정 엄마의 첫 번째 선물

“태반이 유착되어 있어 출혈량이 많습니다. 산모가 위험하니, 다른 선생님들 좀 불러주세요.”

수술실에 들어간 지 10분 만에 둘째의 건강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이제 모든 고통이 끝날 거라 안심했다. 그러나 의료진의 다급한 목소리가 귓가를 때렸다.

“출혈이 안 잡혀요! 자궁 수축제를 더 주세요!”

태반 유착으로 인한 과다 출혈, 끝도 없이 이어지는 수술. 자궁 수축제가 위로 역류하며 식도를 타고 올라왔고, 숨이 막혀 산소호흡기를 벗겨 달라고 애써 말했다. 하지만 정신은 점점 멀어졌다. 죽음이 눈앞에 덜컥 다가오는 순간, 두 돌도 안 된 첫째 아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안 돼… 나 죽으면 아이들이… 엄마도 없이 나처럼 크면 안 돼…’

그 순간, 떨리던 내 손을 감싸준 따스한 손길. 아마 간호사의 손이었겠지만, 나는 하늘에 계신 엄마의 손길이라고 믿었다. 엄마가 내 손을 꼭 쥐며 이렇게 말하는 듯했다.

“괜찮아, 괜찮아. 아직 아이들 옆에 있어야지.”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기 직전 기적처럼 출혈 부위가 드러났고 피가 멎기 시작했다. 온몸은 마치 시체처럼 땏기 없는 노란빛이었지만, 그저 아이들곁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음에 감사했다. 나는 믿었다. 그날 엄마가 나를 살려주셨다고. 그리고 또 한 번, 엄마는 다른 모습으로 나에게 찾아오셨다.

### ‘아이돌봄서비스’라는 또 다른 선물



그로부터 6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다. 첫째가 욕실에서 미끄러지는 걸 보고 만들기 시작한 욕실 매트가 수많은 테스트 끝에 시제품으로 나왔다. 머리를 크게 다쳐 한순간에 우리 삼 남매 곁을 떠난 친정엄마. 우리 엄마처럼 허무하게 내 아이들은 절대 잊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시작한 일이었다.

시제품이 나왔다는 건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해야 한다는 뜻이었

다. 하지만 두 아이를 키우며 사업을 한다는 건, 생각보다 벼거웠다.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도 모르겠고, 마음은 늘 조급했다. 친정도, 시댁도 누구 하나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 얼굴에서 점점 웃음이 사라지고, 몸은 철근을 매단 듯 무거웠다. 아, 사람들이 말하는 산후우울증이 바로 이런 거구나.

3살도 안 된 아들 둘, 그리고 새로 시작한 사업. 누가 봐도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이건 내 생계 이상의 의미였다. 엄마의 사고와 그 이후에 내가 겪어낸 엄마 없는 삶을 내 방식으로 견디고,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이었다. 현실적으로 도움을 찾다 발견한 것이 아이돌봄서비스였다. 그렇게 나는 두 명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다.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두 아이를 믿고 맡기면서 내 삶에도 따스한 숨통이 트이기 시작했다. 서서히 나 역시,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내 삶을 개척해 나갈 에너지를 채워 나갈 수 있었다.

선생님들은 주 3~4일씩 오시며 아이들을 정성으로 돌봐주셨다. 첫째 아이는 안 선생님께서 어린이집 하원 후 매번 아이를 놀이터와 도서관으로 데려가 주셨다. 추운 겨울에도 모래놀이를 좋아하는 아이를 위해 손이 얼어가며 놀이터에서 모래성을 쌓아주셨다. 둘째는 박 선생님이 유모차를 끌고 동네를 산책하며 돌봐주셨다. 둘째가 처음 걸음마를뗀 것도, 바로 선생님 앞이었다.

엄마인 나보다 더 엄마 같은 두 분 덕분에 나는 2시간 거리의 울산 공장, 경산 창고에 마음 편히 출장을 다녀올 수 있었고, 하루 종일 작업실에 앉아 디자인하고, 제품 포장도 할 수 있었다. 나는 늘 상상했다. 친정엄마가 육아를 도와주고, 나는 내 꿈을 좇아 일하는 그런 평범한 일상을. 그건

내게 영원히 없는 일이라 믿고 살아왔는데, 내가 그런 삶을 살고 있어 누구도 부럽지가 않다. 아마도 엄마가 마음이 쓰여 하늘에서 보내주신 선물일 것이다. 이렇게 좋은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을 만난 건 그에 준하는 기적이었으니까.

벌써 2년. 아이들은 어느덧 콩나물처럼 쑥쑥 자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다. 선생님들의 도움으로 키울 수 있었던 사업도 자리를 잡아 이제 위험한 욕실 사고로부터 많은 생명을 구하고 있다. 내 아이도, 내 일도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었던 건 온전히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이다.

### 또 다른 기적이 찾아오다

“축하해요, 딸입니다.”

얼마 전, 나는 또 다른 기적 같은 소식을 들었다. 평생 아들만 키울 줄 알았던 나에게 찾아온 예쁜 막내딸. 그 소식을 듣고 나는 병원에 올려 퍼질 만큼 환호성을 질렀다. 무뚝뚝한 남편조차 귀까지 붉어지며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친정 식구들도 아닌, 나의 두 선생님이었다.

며칠 전, 두 분과 함께 작은 임신 축하 파티를 열었다. 오랜만에 만난 박 선생님은 셋째가 태어나면 기꺼이 다시 돌봐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선생님들은 신생아 돌봄은 처음이라며 걱정하셨지만, 나는 안다. 박 선생님이 처음 우리 집에 오셨을 때 하셨던 말씀.

“육아 기술은 조금 부족할 수 있어도, 사랑만은 넘치게 줄 수 있어요.”

맞다. 우리 선생님들은 늘 그랬다. 그러니 나는 조금의 걱정이 없다.

생각해 보면, 처음 수술대에서 엄마가 내 손을 잡아준 그 순간부터 지

금까지 내 곁에는 늘 엄마의 마음이 머물러 있었다. 그 마음이 돌보미선생님의 손길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아이들의 웃음으로 다시 전해지고 있다. 나는 안다.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늘에서 엄마가 보내준 선물이라는 것을. 엄마의 사랑은 이렇게 또 다른 사랑의 모습으로 나타나 내 곁에 머물고 있다.

### **p.s**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우리 가족은 육아의 무게에서 벗어나 각자의 자리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나는 아이와 함께 내 꿈까지 키워갈 수 있었습니다. 많은 가정이 이 따뜻한 제도를 통해 새로운 숨통을 트우고,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여유를 찾길 바랍니다.



## 다문화 엄마의 잊지 못할 축복

장나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아이돌봄센터



“엄마, 엄마 ….”

소아병실에서 깜빡 잠든 나를 아이가 조심스럽게 흔들어 깨웠습니다.

“엄마, 나 할머니 선생님 너무너무 보고 싶어. 전화 한 통만 하면 안 될까?”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둘째 아이를 꼭 안아주며, 나는 익숙한 번호를 눌렀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따뜻한 목소리. 그 순간 아이의 굳어 있던 얼굴이 환하게 풀렸고, 병실 가득 웃음꽃이 피었습니다.

그 ‘할머니 선생님’은 누구일까요? 바로 7년 동안 우리 가족을 보살펴주신 아이돌보미 선생님입니다. 이 이야기는 낯선 나라 한국에서 두 아이를 키우며 엄마로 살아가야 했던, 그리고 그 속에서 소중한 인연을 만난 한

다문화가족 엄마의 진심 어린 고백입니다.

둘째를 출산한 지 6개월쯤 되었을 때, 친정어머니가 병환으로 고향인 중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맞벌이 부부였던 우리는 하루 하루가 전쟁 같았습니다. 한국에 산 지 10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한국어는 어려웠고, 문화의 차이는 깊었습니다. 남편과는 사소한 말 한마디로도 다투었습니다. 서로의 차이를 이해하지 못해 갈등이 자주 일어났습니다. 낯선 타국에서 남편만을 의지하던 나는 점점 예민해졌고, 아이들의 얼굴을 바라보며 이유도 모른 채 눈물이 흐르기만 했습니다. 그런 절망의 시간 속에서 나는 우리 가족의 구원자, 문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문 선생님은 단순한 아이돌보미가 아니라, 나에게 육아의 길을 밝혀주신 스승이었습니다. 친정엄마 없이 시작된 하루는 늘 고단했습니다. 거실 한쪽에서 왼손으로는 세 살짜리 첫째 아이에게 밥을 먹이고, 오른손으로는 갓난아기 둘째의 우유병을 쥐고 있던 아침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출근 시간이 다가와도 세수조차 하지 못한 채, 마음은 뜨거운 가마솥에 앓아 있는 개미처럼 조급했습니다. 그때 들리는 현관 초인종 소리, ‘딩동’은 제게 구세주가 오는 소리였습니다.

잠든 아이의 볼에 조심스레 뾰뽀를 하고, 고개조차 돌리지 못한 채 부리나케 집을 나섰습니다. 첫째를 어린이집 차에 태워 보내며 걱정 없이 출근할 수 있었지만, 그래도 엄마의 마음이란 회사에서도 불안하기 마련



입니다. 혹시 아픈 건 아닐까, 우유는 잘 먹고 있을까, 엄마를 찾으며 울고 있는 건 아닐까… . 걱정으로 머릿속이 복잡할 때마다 선생님은 하루일과가 빼곡히 담긴 일지와 함께 아이의 상태를 꼼꼼하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선생님의 글을 읽는 순간 마음이 놓였고, 남은 하루도 차분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무렵 코로나19라는 전염병이 세상을 덮쳤습니다. 수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일상은 무너졌으며 모두가 두려움에 떨던 시기였습니다. 우리 가족도 어떻게 이 상황을 견뎌야 할지 몰라 막막했지만, 돌보미 선생님은 우리를 위해 직접 코로나 예방 지침을 만들고, 기본적인 위생 수칙을 반복 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스크 착용, 손 씻기, 공간 소독까지 철저히 실천하도록 지도해주셨고, 우리 가족이 건강하게 그 시기를 견뎌낼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셨습니다.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첫째가 칭얼대면 나는 지쳐서 아이를 품에 안아주기는커녕 짜증을 냈습니다. 이런 나를 보며 선생님은 이렇게 조용해 말씀하셨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말과 행동을 통해 세상을 배워요. 차분히 말해주고, 사랑을 표현하는 게 중요해요.”

그 한마디는 내 가슴을 울렸고, 엄마로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둘째는 편식이 심해 늘 고민이었습니다. 고기는 먹지 않으려 하고, 음식 앞에 앉으면

울기 일쑤였습니다. 그때도 선생님은 이유식 만드는 법을 차근히 알려주셨고, 야채에 다진 고기를 섞어 조금씩 익숙해지도록 유도하는 방법을 함께 시도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정성껏 반복한 결과, 지금 둘째는 편식 없이 편식 없이 다양한 음식을 즐겨 먹게 되었습니다.

다문화가족인 나는 아이의 언어 발달에도 늘 걱정이 많았습니다. 또래 보다 늦지는 않을까, 의사소통이 어려워지는 건 아닐까. 그때도 선생님은 아이의 눈높이에 맞춘 언어놀이, 인자놀이, 신체놀이를 매일 준비해 주셨고, 놀이 속에서 자연스럽게 배우고 익히는 방식으로 아이를 지도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고, 아이와의 관계를 더 따뜻하게 가꿀 수 있었습니다.

7년이란 시간 동안 문 선생님과 함께한 경험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나에게 ‘엄마로서 다시 태어나는 시간’이었습니다. 아이에게 사랑을 주는 법, 엄마로서 자신감을 갖는 법, 그리고 한 가족이 함께 성장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은 저 같은 외국인 엄마에게 너무나 큰 도움이 되어주셨고, 지금도 마음속 가장 따뜻한 존재로 남아 계십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막막하고 힘든 순간이 참 많습니다. 그럴 땐 혼자 고민하지 말라고,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신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老師，真心感謝您

您是我們全家的恩人，是我們一生難以忘懷的祝福

(선생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은 우리 가족의 은인이자, 평생 잊지 못할 축복입니다.)



## 아이돌봄서비스로 찾은 보통의 일상

박경아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아이돌봄센터



2019년 우리 부부가 결혼한 첫 해, 우연한 기회에 제주살이 로망을 품게 되면서, 가슴 속 품어 둔 사직서를 내어주고 제주도 이주를 결심하였다. 당시 뱃속에 첫째를 품고 있었던 터라, 연고도 없는 낯선 곳에서 애 키우며 뭐 해 먹고 살 거냐는 걱정의 말을 들을 때면 귀를 막고 대책 없는 패기만 앞세웠고, 오로지 긍정적인 생각만으로 제주도에 이주하였다.

맞벌이 가정에서 자라온 나로서는, 우리 부모가 아침 일찍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면서도 공교육과 사교육, 가족들의 도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육 공백을 잘 채워주셨기에, 나의 아이 또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키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였다. 친정엄마가 나와 동생을 낳고 일주일 만에 직장에 복귀하여 환갑이 넘은 지금까지도 여러 방면으로 소득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그게 증거이기도 하다. (물론 이런 나의 철없는 생각

은 훗날 아이 셋을 낳고 나서야 나의 부모님께서 상상 그 이상의 고달픈 삶을 살아내셨음을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제주도로 이주한 후 배가 불러올 수록 아이를 키운다는 게 ‘문제’로서 인식되었고, 현실적인 문제들을 짚어보게 되었다. 우선 가장 큰 건 돌봄의 문제였다. 신랑은 새로운 지역에서 자영업을 자리 잡는 데 매진 중이었기에, 나는 아이를 돌보는 데 매진해야 했다. 아이를 돌보는 게 우선인 건 알지만 ‘경력 단절’이란 단어는 많은 의미가 내포되어 있고, 도태되진 않을까 마음이 조급해졌다.

그렇게 2020년 첫째를 낳자마자 일명 친정엄마 찬스를 사용하였고, 그 덕분에 첫아이 100일날 새로운 직장에 첫 출근을 할 수 있었다. 그런데 코로나19라는 계획에 없던 변수가 생겼고, 친정엄마도 내 곁에 영원히 있어 줄 수 없다는 사실에 직면했다. 감염 의심 증상 하나만 보여도 그 즉시 어린이집에 등원할 수 없었고, 그 공백을 가족의 도움만으로 메울 수가 없었다. ‘시터’로 불리는 분을 모시더라도 비용이 부담되었다. 하루아침에 단시간 일하실 수 있는 분을 모시는 것도 운이 따라야 했다. 그렇게 새로운 직장에서 모든 휴가를 소진하고 돌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7개월 만에 퇴사하고 말았다.

그 이후, 둘째와 셋째를 연년생으로 낳았고, 남편의 일을 틈틈이 도와가며 집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보기 시작하였다. 블로그를 운영하고, 케이크 토퍼나 풍선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아주 작고 귀여운 소득이 근근이 발생하였으나, 집안에서 영유아를 돌보며 작업하는 행위는 매우 어렵사리 겪우 이루어졌다. 일과 가정, 두 마리의 토끼를 잡겠다고 호언장담했지만, 어느 하나 아무지게 해내지 못했다. 금실 좋던 우리 부부에게 생긴 3명의 아이를 축복으로만 받아들이기에는 하루하루가 고달팠다. 내가 마음

만 먹으면 할 수 있었던 일은 먹을 수 없는 그림의 떡과 같았고, 간단한 외출조차 쉬이 허락되지 않는 하루하루가 쌓이면서 무력감과 우울감이 커졌다. 그리고 아이들을 향한 언행이 예민해지고 날카로워질 무렵, 아이돌봄 서비스를 알게 되었다. 신랑이 자영업 중 알게 된 고객분이 애가 3명인데, 몇 년째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들의 하원 이후 시간을 걱정 없이 맡겨왔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정부 지원까지 받아 가면서 말이다.

그길로 아이돌봄서비스에 대해 알아보았다. 혹여나 내가 잘못 알고 거절당하진 않을까, 바쁜 민원 속 나의 사소한 질문에 짜증스러운 대답을 듣



게 되진 않을까 걱정하며 홈페이지에 실린 내용들은 물론, 아이돌봄사업  
지침서까지 정독하고, 과거 아이돌봄서비스 이용 수기까지 읽어본 후에야  
전화를 걸 수 있었다. 걱정한 시간이 무색하게 모두 친절하고 상세하게 알  
려주셨다. 누군가는 나의 이런 모습을 이해 못 할 수 있으나, 경력 단절이  
되어 집에서 아이들과만 대화한 지 4년 차가 되니 사소한 문의 전화조차도  
울렁증을 느끼는 소심한 사람이 된 것이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신청한 지 한 달이 될 무렵, 제주시아이돌봄센터로부터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되었다는 연락을 받았다. 그렇게 고대하던 순간  
이 찾아왔지만, 모르는 누군가가 우리 집에 와서 아이들을 봐준다는 게 너무  
어색했고, 뉴스에서 접한 아동학대 사건들이 떠오르며 혹시나 하는 걱  
정 속에 매몰되었다. 하지만 이것 또한 과하게 앞서나간 걱정이었고, 선  
생님의 한결같은 “안녕하세요~” 하는 밝은 목소리에 덩달아 힘이 나고 기  
분이 좋아졌다. 아이들도 새로운 어른과 함께하는 것에 경계심보단 호기  
심과 기대에 찬 마음으로 적응해 갔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변화한 일상이 몇 가지 있다.

가장 큰 변화는 우리 가족의 일상이 단순해졌고, 밝아졌다. 선생님께선  
세 명의 아이가 하원하면 집에 오자마자 함께 손을 씻고, 오늘 하루 어땠  
는지 대화를 나누며 아이들이 하고 싶어 하는 놀이를 함께 해주신다. 책도  
읽고,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놀이도 하고, 소꿉놀이도 하고, 신나는 노  
래를 함께 부르기도 하면서 말이다. 그렇게 잘 놀고 나면, 미리 차려놓고  
간 저녁을 준비해 주신 후 아이들이 식사 예절을 잘 지키며 끝까지 잘 먹  
을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밥을 다 먹은 후엔 스스로 정리정돈하는 방법을  
조금씩 알려주신다. 평범하고 단순하지만 필요한 습관을 함께 만들어주셨

고, 거창하기보단 진심을 담아 아이가 하고 싶은 놀이를 함께 해주셨다. 아이들은 눈에 띄게 밝아지기 시작했고, 잘 노니깐 잘 먹고 잘 자니 더할 나위 없이 좋은 보통의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그동안 아이들의 생애 발달기를 걱정하며, ‘부모의 권위를 잃지 않는 말투’, ‘이렇게 혼내면 3년 뒤 IQ가 떨어져요’, ‘아이의 미래를 결정짓는 뇌 발달 황금기 0~3세’ 등 내 마음이 조급해지는 자극적인 정보들은 열심히 습득하면서, 하루에 10분조차 아이들과 온전히 놀아준 적 없는 모순을 인지하고 반성했다. 이제는 선생님의 밝고 긍정적인 기운을 받아 하루 단 10분이라도 아이들에게 오롯이 집중할 수 있도록 연습하고 있다.

다음으로는 우리 부부의 마음이 여유로워지고 생각이 유연해졌다. 평일 오후 4~7시 동안 고정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아이들의 하원 이후 시간까지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혹여 아이가 갑자기 아파 어린이집에 등원을 못 하게 되더라도 긴급돌봄서비스 신청을 통해 해결할 수 있고, 자영업 특성상 주말까지 일을 하게 되더라도 일시연계서비스를 통해 해결이 가능하니 마음이 한결 여유로워졌다. 물론 아이돌봄센터의 업무 외 시간일지라도 ‘아이돌봄서비스 앱’에서 AI 자동 배정 시스템을 통해 손쉽게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 남편 혼자 벼겁게 하던 일을 아이들 걱정 없이 부부가 함께 운영하니 사업체를 확장하기 위한 생각의 유연함도 생겼다. 꾸역꾸역 돈을 벌기 위한 행위가 아닌, 사업주로서 성장하고 싶은 열정을 얻었달까….

마지막으로 이용자인 나의 자존감이 존재감을 보인다. 하루 3시간 서비스만으로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그간 돌봄 공백 문제를 몸소 느껴온 만큼 내게 고정적으로 주어지는 하루 3시간이 얼마나 소

중하고 감사한 일인지 너무 잘 안다. 생각으로만 쌓아둔 일들을 하나씩 해 낼 때마다 자신감이 생기고, 일하고 양육하는 일상이 신이 난다. 생기가 생기니 나의 몸과 마음의 건강도 돌보게 된다. 나의 자존감이 회복되고 있는 신호로 보인다.

제주도 사투리 중에 “잘도 아꼽다.”라는 말이 있다. 매우 사랑스럽다는 뜻으로,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자주 해주는 말이다. 선생님 역시 아이들과 놀면서 아꼽다는 말씀을 자주 해주셨다. 속으로 ‘맞아, 우리 애들 정말 너무 아꼬와.’ 생각하며 그 말을 곱씹다 보면 서글퍼진다. 우리 아이들이 아꼽다는 사실도 잊은 채 신세 한탄하며 은연중 아이들을 걸림돌이라 생각해 온 내 모습이 너무 속상해서 말이다. 더 많은 사람이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아이가 있어서’라는 이유로 포기되는 일상이 줄었으면 좋겠고, 가정에서 아이의 잘도 아꼬운 순간을 권리로써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다.



## 아이가 가르쳐준 시간

전애정

경상남도 진주시아이돌봄센터



유난히도 기승을 부렸던 강풍과 변덕스러운 날씨 탓에 예년보다 더위가 더디게 오는가 싶더니 무성한 초록 잎이 귓가에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어느덧 여름이 천천히 스미고 있음을 깨닫게 되는 요즘입니다. 매해 이맘때 가 오면 아이돌보미를 처음 시작했을 무렵, 설렘보단 막연한 걱정으로 잠을 설치곤 했던 2015년의 초여름이 문득 떠오르곤 합니다. 헤아려보니 벌써 올해가 꼭 10년째입니다. 팬스레 동하는 마음에 저 스스로 작게나마 10주년을 기념해 보고자 이렇게 펜을 잡게 되었습니다.

처음 아이돌보미라는 이름으로 이 길에 들어섰을 때, 지난날의 육아 경력이 무색하게 무엇 하나 서툴지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기저귀를 갈 때도 젖병을 들 때도 어색했고, 아이가 날 선 울음을 터뜨릴 때면 혹시 내가 뭘 잘못했나 싶은 마음에 덜컥 겁부터 났었습니다. 부모님이 맡긴 소중한 아

이를 내 경험과 능력으로 잘 돌볼 수 있을지에 대한 책임감이 너무도 크게 느껴져 아이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내가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점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루 종일 아이의 요구에 맞춰 움직이고, 부모님의 기대와 요구 사이에서 조율하며 마음도 많이 다쳤지만, 때론 그 감정도 숨긴 채 웃어야 할 때마다 몸과 마음이 지쳐서 나는 과연 이 길을 잘 선택한 것인지 의구심을 품는 숱한 나날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긴장감 속에서도 아이가 웃거나 내 손길에 편안해하면 걱정이 조금씩 덜어지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맞는지 아이들과의 시간을 축적해 나가면서 아이의 눈빛이 말을 걸어올 때를 알게 되었고, 부모님들의 염려가 어느 방향에서 오는지를 읽을 수 있게 되자 그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모습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안아주는 손은 더 단단해졌고 달래는 목소리는 더 부드러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신뢰하고 편안하게 다가올 때 그때 비로소 내가 잘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이 일이 단순히 아이의 건강과 안전만을 돌보는 일이 아닌 마음의 다리를 놓는 섬세한 일임을 깨달으며 매일매일 더 나은 아이돌보미가 되어감을 실감했습니다. 그렇게 돌보미로서의 시간이 차곡차곡 쌓여갈 즈음, 저는 또 한 번 새로운 세계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또래보다 작고 마른 생김새, 개월 수에 비해 낯선 얼굴 앞에서 저는 직감적으로 느꼈습니다. 아이는 임신 8개월, 그러니까 32주 만에 세상에 나왔고 생후 7개월이 되었지만 교정 연령으로 따지면 발달은 아직 생후 5개월 수준이었습니다. 엄마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다른 애들은 뒤집고 한다던데 우리 애는 그냥 누워만 있어요. 가끔은 눈도 잘 안 마주쳐서… 제가 뭘 놓치고 있는 걸까요?”

그 말속에는 지치고 위축된 마음이 고스란히 묻어 있었습니다. 돌보미로서 경력이 쌓일수록 나는 돌봄이 단지 아이의 보살핌을 넘어서 부모의 불안에 함께 머물러 주는 일임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 건 아이의 현재 상태를 조급함 없이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누워 있는 시간이 많았던 아이는 머리 형태가 한쪽으로 납작했고 눈맞춤도 짧았고 소리에 대한 반응도 미미했습니다. 나는 우선 감각 자극과 정서 교류부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 시선을 맞추고 이름을 부르며 자주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가 내 목소리에 반응해 눈을 마주치는 시간이 조금씩 길어졌고 그때마다 나는 활짝 웃으며 반응했습니다.

“그래 잘 봤어. 너도 내 얼굴이 궁금했구나.”

이 단순한 교감이 반복되자 아이는 차츰 이름을 부르면 고개를 돌리는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그렇지만 확실한 변화를 보여주는 아이를 보며 나는 몇 년 간 제쳐두었던 돌봄 기록을 매일 남기며 아이 엄마와 공유했습니다. 어떤 장난감에 반응했는지, 눈을 몇 초 동안 맞추었는지, 옆드려 있기는 몇 번 시도했는지 이런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아이에겐 큰 도전이었고 나에게는 기록할 가치가 있는 성장이었습니다.

이 중 옆드려 있기는 아이에게 가장 힘겨운 도전이었습니다. 하루 세 번 1~2분부터 시작했지만 얼굴을 돌리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리기 일쑤였습니다. 애타는 마음에 직접 옆드려 기는 모습도 보여주고 여러 자극을 주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옆드리기를 시작으로 어느덧 고개를 들고 팔로 바닥을 미는 모습까지 보여주었습니다. 이 작은 벼티기는 이후 기어다니기의 시작이 되었고 결국 교정 6개월 무렵 아이는 스스로 기어다니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 변화는 단지 아이의 몸동작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를 바라보던 엄마의 눈빛도 달라졌습니다.

“이 아이가 못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냥 시간이 필요했던 거였어요.”

그렇게 말하던 엄마는 자신감과 웃음을 되찾기 시작했고, 나는 그 변화를 누구보다 기쁘게 지켜봤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어느덧 몇 개월이 더 흘렀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이에게 꼬리표처럼 따라붙었던 발달지연이라는 수식어가 믿기지 않을 정도로 말도 또래보다 훨씬 빨리 트이고 작은 몸은 하루가 다르게 씩씩하게 자라났습니다. 마치 그동안 잠시 쉬어갔던 시간까지 보란 듯이 채워가듯 아이는 오늘도 놀라운 속도로 세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요즘은 어린이집에서 발레를 배우는 중인데 동작들을 직접 보여주며 “선생님, 이렇게 해요~” 하며 손끝을 쪽 펴고 발끝을 모아 귀엽게 포즈를 취하며 틈만 나면 나만을 위한 발레교습소를 열어줍니다. 노래를 한 번만 들려줘도 얼마나 잘 따라 하는지 춤까지 붙여가며 세상에서 가장 앙증맞은 단독 콘서트가 열립니다.

하루가 다르게 꽃을 피우는 아이의 변화를 보며 나는 오늘도 기다리는 사랑이 얼마나 깊고, 말 없는 노력이 얼마나 빛나는지를 배웁니다. 지난 10년의 시간에 묻혀 있던 진심이라는 초심을 아이는 다시 일깨워 주었습니다. 능숙함에 젖어 무뎌질 뻔한 마음을 다시 따뜻하게 데워준 존재였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나는 누군가의 작고 떨리는 시작에 따뜻한 손길을 뻗을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디다 해도 끝내 제빛을 향해 피어가는 아이들의 여정을 함께 걷는 아이돌보미이고 싶습니다.



## 돌봄은 내 삶, 아이들과 함께한 16년

박금선

울산광역시 중구아이돌봄센터

어느덧 아이돌봄 일을 시작한 지 16년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누군가의 아이를 맡는 일이라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일이 제 삶의 한 부분이 되었고, 지금은 ‘돌봄’이 곧 나 자신을 설명하는 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아이들을 돌봤습니다. 하지만 글을 잘 쓰지 못한다는 생각에, 그동안 한 번도 수기 공모에 참여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즘 문득문득 생각나는 일들이 있어, 용기를 내어 조심스레 펜을 들어 봅니다. 비록 투박하고 서툴 수 있지만, 마음만은 진심을 담아 써 내려가 보려 합니다.

돌봄을 처음 시작했을 때는 생후 7개월 된 영아를 맡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꽤 먼 거리였지만, 아이가 예쁘고 순하다는 말에 선뜻 수락했죠. 하지만 막상 일을 시작하고 보니, 아이는 심한 낮가림이 있어 엄마만 떨어지

면 울음을 터뜨리곤 했습니다. 그 아기를 업고 세 시간 넘게 집 밖을 돌다 보면 아기는 울다 지쳐 잠이 들었고, 그러면 겨우 집에 들어오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고, 한 달쯤 되었을 때는 ‘이 일을 계속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으로 고민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엄마가 직장을 그만두게 되어 돌봄은 잠시 쉬게 되었고, 나는 다른 아이들을 돌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다시 그 엄마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도배일을 배워야 하니 다시 아이를 맡길 수 있겠느냐는 요청이었죠. 나는 거리가 너무 멀어 힘들 것 같다고 정중히 거절했지만, 놀랍게도 그분은 나 때문에 집을 팔고, 우리 집 근처로 이사까지 오셨습니다.

그렇게 다시 인연이 이어졌고, 그 아이는 초등학교 2학년이 될 때까지 나와 함께하였습니다.

그 아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내 삶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기억에 남는 아이들이OO이와OO이 형제입니다. 지금도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치면, 밝게 “선생님!” 하고 인사를 건네주는 모습이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 모릅니다. 그들의 어머니와도 여전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 늘 고마움을 전해오는 따뜻한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도 잘하고, 무엇보다 바르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면 너무도 뿌듯하고 대견하여 가슴이 벅차오릅니다. 이런 경험들이 있기에 나는 지금도 지치지 않고 아이돌봄 일을 즐겁게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이돌봄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특히 영어는 손이 많이 가

고, 1세에서 4세 사이 아이들은 하루 종일 몸으로 놀아줘야 하니 체력도 필요합니다. 5세 이상 아이들은 자기주장이 강해지고, 감정 표현도 복잡해져서 더 세심한 관심이 요구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단순한 노동이 아닙니다.

아이돌봄은 사랑으로 대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을 나는 잘 알기에, 나의 손주들을 돌보는 마음으로 아이 한 명 한 명에게 정성과 진심을 다해 다가갑니다.

아이를 돌보는 것은 그 아이의 하루와 성장을 함께 하는 일입니다. 단지 시간을 함께 보내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늘 배우는 자세로 임하려고 노력합니다. 필요한 교육도 꾸준히 받고, 육아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는 항상 찾아봅니다.

그중에서도 ‘오은영의 금쪽같은 내 새끼’ 프로그램은 절대 빼놓지 않고 챙겨보는 방송입니다. 여기서 배운 육아 팁이나 아이의 감정을 이해하는 법은 실제 돌봄 현장에서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아이돌봄은 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신뢰를 쌓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돌봄 중에 있었던 일들, 아이의 행동 변화, 식사나 수면 상태 등도 자세히 기록하여 부모님께 공유해 드리며, 아이에 대해 함께 소통하고 고민합니다.

돌봄을 하다 보면 힘든 날도 있고, 몸이 고된 날도 있지만, 아이의 웃음 한 번에 모든 피로가 사라지곤 합니다.

말문이 늦던 아이가 어느날 나를 바라보며 “선생님~.” 하고 처음 부르기라도 하면 눈물이 날 만큼 감격스럽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보낸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지금의 나를 만들었습니다.

돌봄은 나에게 단순한 일이 아닙니다. 아이들의 하루를 책임지는 무게감 있는 일이고, 동시에 한 사람의 삶을 환하게 밝혀주는 고마운 경험이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이 나를 통해 따뜻한 기억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초심을 잊지 않고 정성껏 돌보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 스케치북은 아이사랑을 싣고

정태옥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아이돌봄센터



안녕하세요?

내가 아이돌보미로 아이들을 만난 게 2009년이니까 벌써 16년째 천사 같은 우리 아이들과 함께 삶을 누리고 있네요.

누구나 처음이 있고 그 처음은 언제나 중요하지요. 그 처음의 경험이나를 오늘까지 아이들과 함께하게 한 큰 원동력이 된 것 같아 부족하지만 용기를 내어봅니다.

내 아이들을 길러 본 경험이야 있지만 남의 집 아이들을 보살핀다는 게 여간 겁나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이야 해마다 교육도 받고 그간의 경험도 쌓여 즐거운 마음으로 아이들을 만나지만 당시에는 큰 용기가 필요했습니다.

밝고 건강하고 불임성 좋은 아이들은 그나마 좀 나은 편이지만 반대의

경우는, 특히 건강에 문제가 있는 아이들을 만날 때는 무섭기까지 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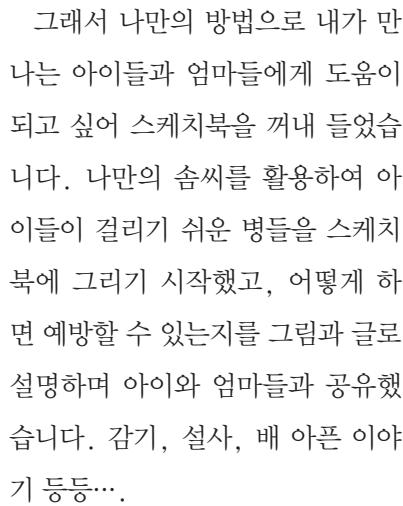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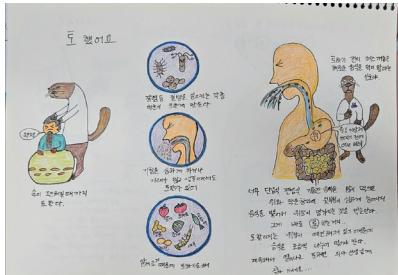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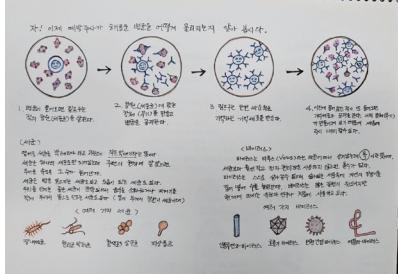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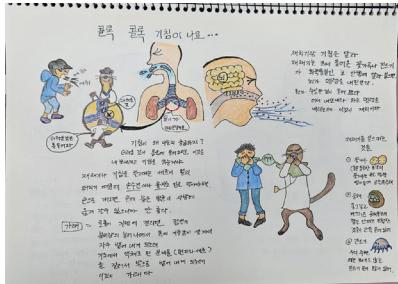
오늘 소개할 이야기도 그런 내용입니다.

7개월 된 이란성 쌍둥이 남매, 정말 너무 예쁘고 사랑스러워서 눈물이 날 지경이었습니다. 엄마는 여자아이(누나)를 나는 남자아이(동생)를 맡아 돌보는데, 동생이 자꾸 열이 났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하고 엄마도 나도 깊이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소아과를 2주 정도 다니는데도 호전이 되지 않아 대학병원에 가보니 뇌수막염이라는 게 아닙니까! 엄마도 당연히 놀라셨겠지만, 당시 나는 놀람과 두려움에 죄책감까지 더해져 심장이 오그라드는 것 같았습니다. 비록 의사는 아니지만 감기와 뇌수막염도 구별 못 하는 변변치 못한 어른이 된 것 같아 너무너무 미안했습니다.

결국 태어난 지 7개월밖에 안 된 아기는 뇌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 상황을 지켜보는 엄마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을 것입니다. 다행히 지금은 다 나아서 건강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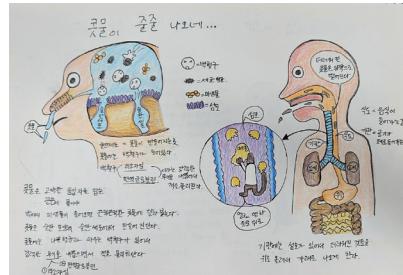
하지만 당시 나는 그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서 다시 아이들을 어떻게 볼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오히려 엄마는 내게 고맙다고 인사를 해왔습니다. 7개월 된 아이의 뇌수술로 너무 무섭고 겁이 났는데 선생님이 계셔서 큰 힘이 되었다고, 친정엄마처럼 언니처럼 힘든 시간을 함께해줘서 감사하다고….

염치없게도 그 말이 고마웠습니다. 내가 뭘 했는지도 모르는데 내가 저 힘든 엄마에게 도움이 되었다니… 그럼에도 나 자신에게는 부끄러웠습니다. 도대체 고맙다는 인사를 받을 자격이 있기는 한 걸까?



또 아이들에게 유익한 동화를 골라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하면서 이야기를 들려주니까 모두가 무척 좋았습니다. 동화구연 자격증을 아이돌봄에 톡톡히 써먹은 셈입니다.

여러 가지 걸리기 쉬운 병들을 그림과 동화로 스케치북에 채우면서



나 스스로도 많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또 그것을 매개로 아이나 엄마들과 나눌 이야기도 많아졌습니다. 모든 것이 선순환이 되면서 내게는 훈장처럼 그림으로 가득 찬 스케치북이 늘어갔습니다. 그리고, 스케치북이 쌓일 수록 보람도 늘어가는 중입니다.

적지 않은 나이에 시작한 (이름도 예쁜) 아이돌보미이지만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 위해 매 순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가정과 사회를 지키는 돌봄 울타리

### 민기동

충청남도 천안시아이돌봄센터



2023년 4월,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아이돌봄지원팀 팀장으로 발령 받으며 나는 새로운 도전의 문을 열었다. 유아교육을 전공하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 다양한 연령의 아이들과 함께하며 교육·보육 실무 경험을 쌓았고, 이후 10년 동안 어린이집을 운영하며 교직원 관리, 프로그램 기획, 학부모 상담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해왔지만,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또 다른 세계였다.

첫 출근 날, 익숙한 교육 현장이 아닌 행정 중심의 새로운 구조 속에서 낯설고 두려운 마음이 컸다. ‘내가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이 머릿속을 맴돌았고, 그동안 익혀온 경험들이 과연 이 업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지 걱정도 많았다.

특히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아이를 돌본다’는 단순한 의미를 넘어, 가정

내 양육 공백을 메우고, 부모가 다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돋는 사회적 가치를 가진 중요한 제도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사업을 하나하나 이해하고, 동시에 팀을 이끌어야 한다는 이중의 부담감이 적지 않았다.

그 시기를 무사히 지나올 수 있었던 건, 언제나 따뜻한 시선으로 응원해 주고 묵묵히 이끌어 준 센터장님과 곁에서 함께 고민하며 손을 내밀어 준 팀원들 덕분이었다. 부족한 점을 감싸주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서로 의지하며 하나의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갔기에, 오늘의 내가 있을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실무에 익숙하지 않았던 시기에 충청남도 아이돌봄광역 지원센터의 든든한 지원이 큰 도움이 되었다. 사업 운영에 필요한 매뉴얼부터 세세한 사례 상담, 그리고 실무 교육까지 꼼꼼히 안내해 주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파악하고 팀을 운영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진심 어린 조언과 실질적인 도움 덕분에 나는 점차 자신감을 얻었고, 하나씩 업무의 결을 이해하며 실무에 적응해 나갈 수 있었다.

업무에 익숙해질수록 내가 알게 된 사실은 많은 가정이 이 제도의 혜택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었다. 나는 현장에서 아이돌봄지원사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홍보하는 데 힘썼다. 지역 내 어린이집과 유관기관, 산후조리원 등에 사업을 안내하고, 육아에 지친 부모님들께 제도의 장점을 설명해 드렸을 때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너무 감사해요.”라는 말씀을 들을 때면, 이 일을 하는 이유와 가치를 다시금 되새기게 되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 어느 날, 아동보호전문기관으로부터 한부모 가정의 긴급한 돌봄 지원 요청이 들어왔다. 초등학교에 다니는 여아가 있었는데, 아이를 돌보던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면서 아이 혼자 집에 남게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보호기관

측에서는 아버지가 치료를 포기하고 집으로 돌아가려 한다며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연락을 주었다. 우리 팀은 곧바로 돌봄서비스가 가능한 돌보미를 섭외했고, 다행히 당일 저녁부터 돌봄이 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연계 조치를 했다.

해당 아동은 낯가림이 심하고 외부인과의 소통을 어려워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었기에, 활동하실 돌보미 선생님께 아이의 특성과 상황을 충분히 안내해 드렸고, 조심스럽고 따뜻하게 접근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다. 며칠 후, 돌보미 선생님께서 센터로 전화를 주셨는데, 아이가 먼저 “배고파요, 밥 챙겨주세요”라고 말하며 마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다는 보고였다. 그 따뜻한 변화에 가슴이 뭉클해졌다. 어느 순간엔 아이가 책을 가져와 선생님 옆에 다가와 함께 책을 읽고 웃음을 나누었다는 이야기를 들으며, 선생님의 진심 어린 돌봄이 아이의 마음을 조금씩 열게 했음을 느낄 수 있었다.

며칠 뒤에는 아버지께서 센터로 전화를 주셔서 감사의 말을 전했다.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치료를 포기하지 않고 잘 받고 퇴원할 수 있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그 한마디가 내게는 그 어떤 성과보다도 큰 울림이 되었고, 내가 맡은 이 일이 누군가의 삶에 얼마나 깊은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다시금 실감하게 된 소중한 경험이었다.

또 어떤 날은 “돌보미 선생님은 언제쯤 배정될까요?”라는 다급한 전화가 걸려 온다. 걱정이 가득한 목소리로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불안해하는 부모님과 통화하다가 “돌보미 선생님이 배정되었습니다!”라고 안내하는 순간, 기쁨이 담긴 안도의 목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전달되는 것을 느끼곤

한다. 그 목소리는 나에게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어준다.

나는 돌보미 선생님들의 정서적 지지를 위한 체계도 함께 만들어 가고 있다. 선생님들이 자긍심을 갖고 활동하실 수 있도록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정신적 소진이 되지 않도록 따뜻하게 응원하고 있다. 선생님들이 안정감 있게 활동해야 결국 우리 아이들과 가정도 안정된 돌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한 가정의 일상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따뜻한 동반자 같은 존재이다. 나는 이 안에서 양육으로 인해 경력이 단절된 엄마가 다시 사회로 나아가는 징검다리를 놓아주고, 긴급한 상황에서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사회적 안전망을 만들어 가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깊은 보람을 느낀다.

앞으로도 모든 아이가 사랑받고, 어떤 가정도 소외되지 않도록, 아이돌봄사업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가는 데 든든한 힘이 될 수 있도록 진심을 다해 노력하겠다. 이 소중한 사업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더 많은 가정에 희망이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 마음과 마음이 닿는 참 고마운 서비스

김혜승

경기도 용인시아이돌봄센터



### 서비스 제공기관 종사자의 하루

오전 9시 10분 전, 커피 한 잔을 가득 채워 자리에 앉는다. 업무 중 자주 사용하는 페이지들을 띄워두고 언제 어떤 문의라도 바로 응대할 수 있도록 세팅을 마치니 어느덧 8시 59분, 목을 가다듬고 손을 풀며 9시를 맞이한다. 밤사이 게시된 글들을 확인하고 이런저런 요청 건들을 하나씩 처리하다 보니 어느덧 10시다. 어제 하루의 돌봄 활동도 모두 무사히 잘 끝났는지, 특히 사항이나 사고는 없었는지 확인하는 눈과 마음이 분주하다. 연도가 바뀌고 학년이 바뀌는 시기가 오면서 서비스 이용을 중지하는 가정과 새롭게 이용을 원하는 가정이 많이 늘어났다. 정기 서비스의 경우 최소 6개월에서 길면 4년 이상까지도 이어지는 경우가 많아 여기저기서 아쉬운 이별을 하는 것을 전해 듣는다. 아쉬운 이별에서 또 새롭게 반가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새로이 연계를 시도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과 꾸준히 신청서를 제출하며 연계를 기다리는 이용자분들을 보며 다시금 아이돌봄센터 종사자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닫는다.

새로 구인해야 하는 신청 건들과 선생님을 배정해야 하는 기존의 신청 건들을 정신없이 정리하다 보니 어느덧 출근한 지도 반나절이 넘어간다. 하루 평균 40~50통의 전화 통화를 하는 역할이다 보니 5시가 되어갈 즘 엔 발성의 정도가 점점 약해진다. 그래도 오늘 하루 많은 이용자들의 궁금증 해소를 도와드리고, 많은 돌보미 선생님들의 어려움을 함께 해결하며 보람찬 시간을 보냈다고 믿는다. 마음 같아서는 서비스 이용을 원하시는 모든 이용자분들이 시기적절하게 좋은 선생님과 연이 닿아 양육의 부담을 덜어내었으면 좋겠지만, 모든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이 좋은 이용자분들을 만나 또 하나의 가정이 행복해질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시면 좋겠지만… . 마주한 현실은 다 마음 같을 수는 없는 것이 조금 씁쓸하다. 그래도 오늘 하루 큰 사고 없이 선생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 해주셨으니, 돌봄을 받는 모든 아동들이 선생님과 함께 무탈한 하루를 보냈으니, 이것만으로도 조급했던 마음이 조금 채워진다. 내일은 모두에게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더 많은 사람들이 좋은 인연과 닿을 수 있기를 마음속으로 되뇌이며 종사자로서의 하루를 마무리한다.

### **나를 웃게 하는 이용자들**

‘따르릉~’ 전화벨소리가 울리고 집어 든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밝은 인사말.

“안녕하세요, 담당자님! 이용자 OOO입니다.”

회사 일로 한창 바쁜 시간임에도 항상 밝은 목소리로 우렁차게 인사를 건네는 이용자분이 계신다. 감사한 마음에 비집고 나오는 웃음을 속으로 삼키며 오늘은 어떤 일로 도움을 드릴 수 있을지 이야기를 나눈다.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분들은 서비스의 특성상 업무로, 양육으로 바쁘고 숨 가쁜 일상을 보내는 분들이 대다수다. 우렁찬 아기 울음과 함께 힘겹게 문의 사항을 이어가는 목소리, 어딘가로 급히 뛰어가며 숨찬 어투로 도움을 요청하는 목소리, 그리고 아이에게 옮은 감기로 컨디션이 좋지 않아 수없이 목을 가다듬으며 문의 사항을 전달하는 목소리… 하루에도 수많은 다양한 목소리들을 만나지만 그 속에는 한 가지 뚜렷한 공통점이 있다.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도 사랑하는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지키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마음을 항상 수화기 너머로 전해 받는다. 하루 중 많은 전화 통화를 거쳐 쉬어가는 목소리에도 그 마음들이 닿는 순간 힘이 생기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물론 모든 이용자분들이 좋은 상황에서 좋은 일로만 전화를 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항상 그 음성 속 숨은 마음을 찾아내려 매일 노력한다. 그리고 내 안 깊숙이 넣어둔 마음을 꺼내어 수화기 너머로 건넨다. 마음과 마음이 닿는 순간 어려움을 이야기하던 이용자분도, 목을 타고 흘러나오는 나 자신의 목소리도 한층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저는 당신의 어려움을 이해하고 있어요. 저는 당신을 도와주기 위해 이 자리에 있어요.’ 그 마음이면 충분한 순간들이 너무나도 많다. 우리 모두는 너무나도 빠르게 흘러가는 일상 속 매일을 살아남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 서비스를 찾아오는 모든 이용자분들이 숨찬 일상 속 쉬어갈 여유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아이돌봄서비스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손길로 인해 잠시

숨 쉴 수 있는 쉼터를 만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 마음이 전화 너머로 만나는 모든 이용자분들께 전해지기를, 나를 웃게 하는 이용자분들이 또한 나로 인해 웃을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오늘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본다.

### 나를 웃게 하는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하루에도 몇십 분 이상의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일을 하고 있다. 처음에는 사실 이름조차 외우기 어려웠는데, 지금은 첫 인사말만 들어도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선생님들이 계신다. 그중에서도 자주 소통하는 덕에 전화 번호까지 외우고 있는 분들도 있다. 항상 수화기 너머로만 소통을 하다 보니 목소리만 아는 전화 친구 같다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지만, 통화를 통해 쌓여진 친밀감은 가끔의 행사와 프로그램 날 직접 보고 만나며 그 형태가 뚜렷해진다.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생기셨네!” 하며 손을 마주 잡아주시는 선생님이 있는가 하면, “선생님 내가 전화를 너무 자주 해서 번거롭게 해서 미안해요~” 하면서 함박웃음으로 따뜻하게 안아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얼굴을 보고 성함을 듣고는 겨우뚱하다, “전화번호 뒷자리 000 선생님 맞으시지요!?” 하면 깜르릉 웃으며 반가워해 주시는 선생님도 계신다. 연세가 있으신 선생님들이 많아 항상 마음이 쓰인다. 000선생님은 얼마 전 발목을 다치셨다고 했는데, 000선생님은 엊그제 아가를 안아주시다가 허리를 빼끗하셨다고 했는데 등등. 걱정하는 마음이 무색하게 모두가 슈퍼맨처럼 밝고 강한 모습으로 ‘두둥!’ 하고 등장해 주신다.

나는 3년간 아이들과 함께하는 일을 하다 와서 아이를 돌보는 일이 행복하고 보람참과 동시에 얼마나 심리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고된 일인지를

잘 알고 있다. 아직 젊은 축에 속하는 나이임에도 매일 녹초가 되어 퇴근 했던 기억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어떻게 저런 에너지를 뽑아내시는지 놀랄 때가 다반사다. 가끔이지만 만나서 얼굴을 마주하고 이야기하며, 수화기 너머로 이런저런 일들에 대해 나누며 그들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돌봄 하는 아이들에 대한, 그리고 이용자 가정에 대한 걱정과 애정을 느낀다. 그래서 알 수 있다. 선생님들은 엄청난 책임감과 사명감으로 매일 출근길에 나서는 것이다. 물론 매일이 평탄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려운 상황을 최소한으로 하기 위해 매일 같이 소통하고 힘을 합쳐 조금 더 나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시는 중이다. 단순히 돌봄을 해주는 아이가 아닌 마치 자신의 친손주처럼 걱정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 주기 위한 선생님들의 마음이 전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럴 때는 새어 나오는 웃음을 막지 않고 함께 웃는다. 그리고 진심으로 공감하고 걱정하며 더 나은 방법을 찾는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맡은 역할을 해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참 고마운 서비스, ‘아이돌봄서비스’다.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감사와 배움이 있었다.

때론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나는 꽂꽃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나의 자리에서 조용히 최선을 다하고 싶다.

—서울특별시 성동구아이돌봄센터 종사자 **이윤주**





## 장려상

### 이용자

**이용성** · 당연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유해진** · 세 아이 엄마의 미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피워낸 행복

**박성수** · 내일을 꿈꾸게 한 아이돌봄서비스

**이선미** · 더디 가도 함께 가는 우리

**문하은** ·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함께할 선생님

### 아이돌보미

**조미나** · 아이돌봄, 내 삶을 성숙하게 빛은 행복한 일자리

**오경숙** · 두 시간의 기적

**남위자** · 잿더미를 딛고 다시 웃는 날까지

**이한순** · 홍보 요정으로의 출발

### 종사자

**고영임** · 17년 여정을 함께한 아이돌봄

**이윤주** · 그때, 네가 이랬었네

**정숙영** · 내게는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 당연했지만 그렇지는 않았던

### 이용성

울산광역시 남구아이돌봄센터



“여보, 나 여기 서류 넣어봐도 될까?”

둘째가 백일쯤 되었을 무렵, 아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아내가 오랫동안 바라왔던 곳에서 몇 년 만에 채용 공고가 난 상황이었다. 다행히 서류 전형에 합격했고, 나는 면접 날 연차를 내고 아기띠를 맨 채 면접장 근처를 서성였다. 결국 어렵게 면접을 통과했고, 그날 저녁 우리는 축하 기념으로 저녁을 먹었다. “잘 되겠지, 뭐.”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마음 한켠엔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 걱정이 앞선 것도 사실이었다.

첫째 아이를 낳고 병원 신생아실에서 아이를 처음 마주했던 순간이 떠올랐다. 신생아실의 커튼이 열리자, 갓 태어난 몽글몽글한 아이들이 바퀴 달린 침대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간호사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하나씩 들어 유리창 너머로 보여줄 때, 그 앞에 선 어른들은 환하게 웃으며 아이의

손짓과 눈 깜빡임에도 기뻐했다. 아이의 부모, 부모의 형제들, 그리고 부모의 부모들이 모여 있었다. 나도 그들 사이에 있었다. 아내를 부축한 채, 갓 태어난 아이를 바라보며 생명의 신비로움을 느꼈다. 많은 가족들 가운데 부부만 온 이들은 우리를 포함해 두 집뿐이었다. “우리 같은 사람들도 있네.” 그런데 다른 부부의 아이 이름표에는 외국인 이름이 적혀 있었다. 우리는 가만히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다. 딱히 슬픈 감정은 아니었고, 그냥 그랬던 것 같다.

당연한 일이었다. 굳이 말로 표현하자면 그랬다. 일곱 살의 나는 집에 혼자 들어와 문을 열고, 밥솥에서 밥을 펴 담고,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다 먹은 그릇은 물에 담가놓았다. 가스불은 꺼졌는지 두 번, 세 번 확인했다. 그런 다음 TV를 켜고 만화를 봤다. 그러면 어스름한 저녁에 어머니가 집에 오셨다. 그리고 깜깜한 밤이 되면 아버지가 오셨다. 일어나면 유치원에 갔고, 집에 와서는 밥을 먹었다. 그렇다고 해서 슬프거나 외롭다고 느껴본 적은 없었던 것 같다. 가끔은 집에 엄마가 있는 친구들이 부럽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러한 일상은 나에겐 당연한 것이었다.

최근에 사람들이 많이 본다는 한 드라마 소식을 들으며 나의 어머니에 대해 생각했다. 어머니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했다. 그러고는 집에 들어와 설거지를 했고, 다음 날 먹을 반찬을 만들었고, 늦게 들어오시는 아버지의 밥상을 차려주었다. 내가 좀 더 자라서는 새벽에 일어나 도시락을 쌌고, 수험생 때는 어디서 좋다는 것을 들으셨는지 홍삼을 직접 만들어 자식에게 먹였다. 어머니는 책을 읽는 것을 좋아해서 틈틈이 책을 읽으셨고, 종종 좋은 글들이 모여 있는 – 비싸지는 않았던 – 월간 잡지를 사셨다.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으나 끝내 배우지는 못했다.

아버지는 인생의 절반을 해외에서 사셨다. 유학이나 주재원 같은 이유면 좋았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다니시던 공장이 문을 닫게 되자 일을 알아보려 적도 가까운 나라로 가신 것이었다. 부산의 공단에서 일하시며 밤늦게 들어오시던 아버지는 경기도 안산으로 직장을 옮기셨다가 이제는 큰 지진이 날 때마다 언급되는 나라에 가셨다. 그 시절에는 전화도 잘되지 않았기에 어머니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는 말을 종종 하셨다. 아랫집에 살던 아저씨는 원양어선을 타셨는데, 이제는 아버지를 보는 것이 그 아저씨를 보는 것보다 더 힘들게 되었다.

아내를 만났고, 결혼을 했다. 어머니는 상견례 자리에서 장인, 장모님을 처음 뵈었고, 아버지는 결혼식 날 두 분과 처음 인사를 나누었다. 나의 부모님은 두 분 다 해외에 살고 계셨고 장인, 장모님은 우리나라 지도를 펼쳐 가장 먼 대각선을 그었을 때 닿는 지점에 살고 계셨기 때문이었다. “처음 뵙겠습니다.” “아드님, 따님을 정말 잘 키우셨네요.” “아닙니다. 제가 해준 것은 없습니다.” “네, 자기들끼리 알아서 잘 결정했겠지요.” “감사합니다.” 대화는 대략 이런 식으로 이어졌던 것 같다. 결혼을 했고, 아이를 낳았고, 나의 아이들은 영상통화를 통해 조부모를 처음 만났다. 그래도 행복했고, 기뻤다. 당연한 나의 삶의 연속이었다.

첫째를 가졌을 때 아내는 일을 쉬었다. 그리고 공부를 시작했다. 무엇을 하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필요할 것 같다고 했다. 그래서 반대하지는 않았다. 학위를 마쳤고, 막연하게나마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다고 했다. 그리고 둘째를 낳았다. 당시, 아내의 생각으로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꼭 해보고 싶은 곳에서 채용 공고가 났다. 혹시나 떨어질까 봐 몰래 지원했지만 서류에 붙은 바람에 나에게 합격 사실을 알려주었다. 면접을

보려면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돌보미 선생님은 아내가 출근하기 며칠 전에 처음 봤었다. 자그마한 우리 가족들과는 달리 키가 크셨고, “엄마 아빠가 아이들 키우느라 고생이 많아요.”라는 말을 건네주셨다. 친한 친구나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그런 말을 들은 건 처음이었다. 갓 뒤집기를 성공한 둘째와, 이제는 ‘떨어진다’는 게 무엇인지 아는 첫째가 걱정되긴 했지만, 우리 부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우리는 문을 나섰고, 각자의 출근길로 향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서로 연락할 시간도 없었고, (다행히도) 집에서도 전화가 오지는 않았다. 무소식이 희소식이었다. 그렇게 7년의 시간이 흘렀고, 아이들은 어느덧 일곱 살, 열 살이 되었다.

일곱 살이 된 딸은 밥솥에서 밥을 푸는 법도 모르고, 밥을 다 먹은 뒤에는 식기를 물에 담가야 한다는 것도 모른다. 유치원에 다녀오면 옷은 늘 뒤집힌 채로 벗어놓는데, 그럴 때마다 나는 “선생님, 이런 건 다 해주지 마세요. ○○야, 아빠는 일곱 살 때 이런 것도 하고 저런 것도 했어.” 같은 말을 선생님과 아이에게 건넨다. 그러면 아이는 슬며시 돌보미 선생님 뒤로 숨고, 선생님은 “아이고, 아빠. ○○이는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얼마나 잘하는데요.” 하며 아이를 감싸준다.

둘째는 처음엔 말을 잘 떼지 못했다. 코로나가 한창일 때 태어나서, 또래 아이들 말이 늦다는 뉴스를 본 기억이 있다. 그래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족 몰래 인터넷 창을 뒤적이며 검색했던 순간이 떠오른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걱정이 무색할 정도로 말을 잘할 뿐 아니라, 많이 하고, 목소리도 크다. 뒤집기를 성공한 아이는 그 뒤로 곧 걸었고, 말을 시작했으며, 기저귀를 뗀 후에는 더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네 타는 것을 좋아하고, 자전

거를 타기 시작했으며, 학교에 다니는 오빠를 따라 구구단 2단을 웅얼거리기도 하고, 리코더를 따라 불기도 한다.

혼자 학교 문을 나서고, 혼자 집에 들어와 밥을 먹었던, 그것이 당연했던 아빠, 엄마와는 달리, 아이들은 학교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돌봄 선생님의 손을 잡고 집에 들어와 저녁을 먹고,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을 이야기하며 집에서 논다. 엄마와 아빠가 집에 돌아왔을 때 인사를 해야 한다는 것, 젓가락질을 하는 법, ‘가나다’를 익힌 것도 모두 돌보미 선생님 덕분이었다.

아내는 올 7월부터 육아휴직을 준비하고 있다. 오랫동안 함께했던 돌보미 선생님과의 아쉬운 작별을 앞두고, 그동안 너무도 당연하게 여겨왔던 것들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게 되었다. 하굣길 기다려주는 어른이 없었던 것이 당연했던 우리와는 달리, 아이들에게는 한결같이 반갑게 맞아주는 선생님이 계신다. 또한 그분은 모든 것이 처음이라 서툴렀고 조급했던 부모에게도 돌봄 스승이 되어주셨다. 돌이켜보면, 우리 가족의 돌보미 선생님은 결코 당연한 존재가 아니었으며, 하나의 선물이었다.

“선생님 덕분에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했고, 저 또한 성장의 과정 속에서 아이들을 기다리는 법을 배웠습니다. 선생님, 정말 감사합니다.”



## 세 아이 엄마의 미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 피워낸 행복

유 해진

충청남도 공주시아이돌봄센터



세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서, 다들 저를 ‘애국자’라고 한다. 딸 쌍둥이에 연년생 아들까지. 하지만 솔직히 얘기하자면,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나 혼자만의 힘이 아니었다. 내 곁에는 늘 든든한 지원군, 바로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계셨다.

2022년 8월, 5개월 된 딸 쌍둥이를 안고 처음 아이돌봄서비스와 인연을 맺었다. 코로나19가 한창이던 시기, 남편 없이 낮 동안 쌍둥이를 혼자 돌보는 것은 버거운 일이었다. 35주 차 이른둥이로 태어나 한 아이는 1.7kg의 작은 체구로 2주간 인큐베이터에서 힘겨운 시간을 보냈고, 다른 아이는 생후 14일 만에 코로나와 폐렴구균에 동시 감염되어 2주 넘게 격리 치료를 받아야 했다. 초보 엄마였던 내게, 그 작고 연약한 두 아이를 온전히 책임져야 한다는 사실은 매일 밤 나를 불안과 눈물 속에 잠 못 들게

했다. 그때, 정부 지원으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있다는 소식은 내게 한 줄기 빛과 같았다. 떨리는 마음으로 아이돌봄센터에 전화를 걸어 회원가입, 정부 지원 신청 절차 등을 안내받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가족에게 천사 같은 돌보미 선생님께서 오셨다.

“안녕하세요? 내일부터 아이돌보미로 일하게 된 〇〇〇이라고 해요.”

첫 만남의 순간은 지금도 생생하다. 사전 방문을 오신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와 함께 우리 집 문을 두드리셨다. 동이들의 수유 시간과 수면 패턴은 물론, 이른둥이로 태어나 특별한 주의가 필요한 아이들의 건강 상태까지 꼼꼼하게 질문하는 모습에서 아이들을 진심으로 아끼고 돌봐주실 분이라는 첫인상과 함께 신뢰가 생겼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이분들은 아이돌봄지원법에 따라 전문적인 교육을 이수하고, 매년 보수교육을 받고 계신 돌봄 전문가였다. 그리고 놀랍게도, 처음 뵈었던 날의 그 따뜻함과 세심함은 지금까지 변함없이 이어지고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덕분에 나는 이전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숨 쉴 틈’을 얻을 수 있었다. 선생님이 쌍둥이 중 한 아이를 따뜻하게 안아 재우거나 신나는 놀이를 함께 해주시는 동안, 나는 다른 아이와 온전히 교감하며 책을 읽어주거나 놀아 줄 수 있었다. 두 아이 모두를 봐주시는 날에는 밀린 집안일을 처리하거나,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며 잠시나마 나 자신을 돌보는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특히나 잦은 잔병치료로 늘 긴장 속에 지냈던 나에게, 온전히 마음 편히 숨 쉴 수 있는 그 짧은 시간들은 그 어떤 보상보다 값진 위로였다.

육아를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을 꼽으라면 단연 아이들이 아플 때이다. 35주 만에 세상에 나온 쌍둥이는 작은 체구만큼이나 자주, 그리고 심하게

아팠다. 코로나19, 노로바이러스, 독감, 파라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아데노바이러스, 수족구… 정말이지 겪을 수 있는 모든 질병을 차례로 앓는 것 같은 아이들을 보며, 나는 속수무책으로 힘들었다. 그때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셨다.

“선생님, 죄송하지만 둑이들이 열이 심해서 그러는데 내일 조금 일찍 와주실 수 있으실까요?”

새벽에 다급한 목소리로 전화를 드리면, 선생님은 늘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나는 시간 괜찮으니 아무 걱정 마요. 바로 달려갈게요.”라며 오히려 나의 안부부터 먼저 물어봐 주셨다. 밤새 아픈 아이들을 간호하느라 지친 내게 전네주시는 따뜻한 위로와 격려, 그리고 “엄마도 식사 꼭 챙겨 먹어야 해요.”라며 걱정해 주시는 선생님의 따뜻한 마음에 늘 깊은 감동을 받았다.

또한,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야 할 때도 흔쾌히 동행해 주어서, 홀로 어린아이 둘을 데리고 가야 하는 짐을 덜 수 있었다. 센터에서도 전염성 질환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서비스 신청 절차와 필요한 서류들을 꼼꼼하게 안내해 주었고, 아이들이 아플 때는 더욱 세심하게 신경 써준 덕분에 마음 편히 아이들을 돌볼 수 있었다. 이처럼 아이돌봄서비스는 단순한 시간제 돌봄을 넘어, 내 삶의 든든한 안전망이자 가장 믿음직한 지원군이 되어주었다.

선생님은 아이들의 발달 단계에 꼭 맞는 다양한 놀이법을 알려주고, 아이들이 좋아하는 친근한 유아어를 사용하며 재미있게 말을 가르쳐주셨다. 아직 발음이 어려운 단어 대신 쉬운 표현으로 바꿔서 알려주고, 아이들이 언어에 대한 흥미를 느끼고 어휘력을 자연스럽게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 서툰 발음으로 또박또박 단어를 따라 하고, 옹알이 대신 두 단어, 세 단어 문장으로 소통하며 밝게 웃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때면, 이것이 바로 진정한 행복이구나 하는 생각을 수없이 했다. 선생님은 아이의 인지 능력과 정서 발달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계신다.

쌍둥이들이 19개월 차에 접어들 무렵, 둘째 아들이 태어났다. 갓난쟁이 막내를 돌보느라 더욱 정신없는 나날을 보내야 했지만, 신기하게도 선생님은 쌍둥이들뿐만 아니라 갓 태어난 막내아들까지 변함없는 따뜻한 마음으로 돌봐주셨다. 어린 세 아이 모두에게 똑같은 애정과 따뜻한 관심을 쏟아주시며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선생님 덕분에, 세 아이의 엄마로서 겪는 어려움을 훨씬 수월하게 극복하고, 아이들에게 더욱 많은 사랑과 관심을 쏟을 수 있게 되었다. 만약 아이돌봄서비스가 없었다면, 나는 아마 세 아이를 키우는 벅찬 현실 속에서 지쳐 쓰러지고, 아이들에게 짜증만 내는 힘없는 엄마가 되었을지도 모른다.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면서 깊이 깨달은 점은, 이 서비스는 단순한 돌봄을 넘어 무너져가던 일상을 다시 일으켜 세우고, 가족 구성원 모두의 행복과 긍정적인 성장을 가능하게 해주는 고마운 존재라는 것이다. 여전히 벅차고 힘든 순간들도 찾아오지만, 세 아이의 해맑은 웃음과 언제나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시는 돌보미 선생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다시 힘을 내어본다.

국가의 체계적인 지원으로 운영되는 아이돌봄서비스가 앞으로도 더욱 많은 가정에 따뜻한 행복과 밝은 웃음을 선사하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



## 내일을 꿈꾸게 한 아이돌봄서비스

박성수

서울특별시 강서구아이돌봄센터



안녕하세요?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함께 세워간다는 마음으로, 32살에 두 아이의 아빠가 된 박성수입니다. 어릴 적부터 시끌벅적하면서도 화목한 가정을 꿈꾸며 살아왔지만, 현실은 꿈과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없어도 행복할 수 있고, 힘들어도 웃을 수 있을 거야’라고 생각했지만, 실제로 바깥일이 점점 더 많아졌고, 육아와 집안일은 자연스레 아내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야근하던 어느 날, 아내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순간 문득, ‘나는 대체 무엇을 위해 이렇게까지 일을 하고 있는 걸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현실은 웃음보다 한숨이 많았고, 사랑만으로 모든 걸 감당할 수 있을 거라 믿었지만,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쉽게 지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나서 돌이켜보면, 그 위기들은 손 하나만 더 있었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길을 나설 때, 원손엔 커다란 짐가방, 오른손엔 둘째 아이, 그리고 첫째의 손은 잡아줄 수 없어 멀뚱히 서 있는 순간들 속에서 절망하고 좌절했던 기억이 납니다.

‘우리 가정이 정말 화목해질 수 있을까?’

‘아이들을 끝까지 잘 키울 수 있을까?’

근심과 두려움 속에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이돌봄서비스센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마치 어린아이가 울며 도움을 청하듯 저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전화를 받아주셨던 선생님께 이자리를 빌려 감사와 함께 죄송한 마음도 전하고 싶습니다.

친절하게 상담해 주시고, 우리 가정에 딱 맞는 방법을 함께 고민해 주시며 아이돌봄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실 처음엔 불안도 컸습니다. 처음 보는 선생님께 우리 아이를 맡긴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은 너무나 따뜻하셨고, 무엇보다 체계적인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가정마다 문화도, 아이의 성향도 다르기에 갈등도 많을 거라 생각했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우리 가정에 맞게 섬세하게 맞춰주시면서도, 교육에 있어서는 중심을 잘 잡고 이끌어주셨습니다. 그 모습에서 정말 큰 감동을 받았고, 저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처음의 의심과 걱정은 언제 그랬냐는 듯 사라졌습니다.

물론 선생님마다 스타일은 다르시겠지만, 아이들의 안전과 성장을 중심에 두고 함께 고민하고 노력해 주는 아이돌봄센터가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요즘엔 감사한 마음이 더 자주 올라옵니다. 현재는 둘째 아이의 돌봄을

받고 있는데, 선생님께서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주시는 데 정말 정성을 다 하십니다. 책을 쌓아두고, 하나하나 다정히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면 감탄이 나옵니다.

처음엔 4개월 된 아이가 과연 책을 알아듣긴 할까 싶었지만, 집중해서 책을 보는 아이를 보며 놀랍고도 감사했습니다. ‘책 안 읽어주는 아빠 밑에서 자랐으면 책이랑은 인연이 없었겠구나.’하는 생각도 들었고요. 선생님 덕분에 책을 가까이하는 습관이 생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습니다.

더 놀라운 건, 선생님이 책을 읽어주시는 모습을 보며 첫째 아이도 변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독서를 싫어하는 저를 닮았다고만 생각했던 첫째가 이제는 자기 전에 동화책을 대여섯 권씩 가지고 와서 읽어달라고 합니다. 예전엔 한 권만 읽어줘도 도망가기 바쁘던 아이였는데, 이젠 제 옆에서 집중해서 책을 듣는 모습을 보며 큰 감동을 받습니다.

처음에는 손 하나만 벨리자는 마음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단순한 도움을 넘어 아이들의 선생님이자, 때로는 부모가 되어주시고, 때로는 할머니처럼 따뜻하게 품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내에겐 친구가 되어주시기도 하고요.

아이들의 성장과 교육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며, 우리 가정도 함께 배우고 성장하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런 제도가 대한민국에 있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물론 경제적인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돈으로는 환산할 수 없는 큰 도움을 받고 있음에 만족하고, 감사한 마음뿐입니다.

여전히 육아는 전쟁 같고, 하루하루가 고된 여정이지만 아이돌봄서비스가 ‘함께’하기에 오늘을 견디고, 내일을 꿈꿀 수 있습니다.

관계자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 더디 가도 함께 가는 우리

이선미

대전광역시 서구아이돌봄센터



세쌍둥이를 출산한 지 어느덧 5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도록 도와준 귀한 은인인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보미 선생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연약하고 작은 3명의 이른둥이 아이를 섬세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고 고운 말씨로 사랑을 속삭여주신 5명의 돌보미 선생님들이 기억 속을 스쳐지나갑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먼 출퇴근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칼같이 시간을 지키신 분, 체력적 소모가 많음에도 기꺼이 자청하여 바깥 놀이를 자주 해주신 분,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시해 본인의 몸보다 소중하게 아이들을 감싸주신 분, 밥투정이 많은 아이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밥 한 틀이라도 더 먹이고자 노력하시는 분들….

온 가족이 코로나에 걸려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그 곁을 굳건히 지켜주고 간호해 주신 분들은 돌보미 선생님이었고, 아이돌봄서비스였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라는 제도 안에 아이를 돌보는 직장으로 묶여 있지만 저희 아이들에게는 또 하나의 가족이 만들어졌다고 자부할 수 있을 정도로 부모, 조부모, 친척 등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제2의 이웃이자 가족입니다.

아이들은 오늘도 말합니다. “선생님 언제 와요?” “선생님 보고 싶어요.” “선생님 사랑해요.” “선생님, 가지 마요.” 아이들은 돌보미 선생님을 엄마 아빠처럼, 때론 할머니처럼 친근하고 존경하는 어린이가 되었습니다. 아이에서 어린이로 성장하기까지 그분들의 무궁한 관심과 지혜, 안전이 바탕이 되었고, 부모로서 이 제도와 사람에 대한 신뢰와 격려가 있었기에 무탈하게 여기까지 왔고, 앞으로의 동행도 믿어 의심치 않을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더불어 현재 다섯째를 임신 중인 저는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다자녀 가정으로 사회 저출산에 이바지할 수 있던 계기가 아이돌봄서비스를 경험하고서였습니다.



5년 동안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자녀 양육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자녀 양육에 고됨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여성가족부가 고민하여 아이돌봄 서비스가 더 많은 가정에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조금씩 바뀌어 가는 것을 몸소 느끼면서 ‘사회가 양육자의 노고를 이해하고 더불어 키워 저출산을 극복하고자 노력하고 있구나.’라는 긍정적인 생각을 심어주었기에 생명의 소중함과 양육에 대한 확신을 갖고 출산을 결정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이돌봄서비스를 통해 제가 경험했던 긍정성과 고마움을 홍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잘 모르는 양육자분께 긍정적인 점을 홍보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돋고, 은퇴를 앞두고 있는 직장동료분들께 아이돌보미 취업에 대해 안내하는 등 상생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자 스스로 조력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발견합니다. 나의 선물과 같은 경험을 널리 알리고 이 서비스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내 마음 한편에 강하게 자리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른이 되고 가정을 꾸려 자녀를 키우다 보니 알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 잘할 수 있는 것은 없고 더불어 같이 키웠기에 엄마도 아이들도 수많은 성장 과정을 지나 더 인성적으로 성숙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 는 것을요.

옛 어르신들은 친척들이, 이웃들이, 직장동료들이 더불어 키워줬다고 말합니다. 현대는 핵가족으로 개인주의가 심해짐에 따라 가족 아래 엄마 또는 아빠, 할머니가 돌보는 경우 외에는 불신을 갖고 갈등을 유발하는 등 엄마들 사이에서 육아가 힘든 노동 1순위로 자리매김 되어 있습니다. 돌보미 선생님이 아이들을 봐주고 있다고 말하면 주변 지인들이 제일 먼저 물어보는 말이 있습니다.

“아이를 맙기는 거 불안하고 걱정되지 않아요?”

물론 처음에는 걱정될 수 있지요. 돌보미 선생님도 처음부터 아이와 가정, 부모의 성향을 파악해 완벽할 수 없고 부모도 돌보미 선생님의 교육이나 생활 지도 방식을 다 알 수 없으니까요. 아이들 또한 친해지고 따르고 말을 듣기까지 많은 시간과 시행착오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더 넓은 마음과 눈으로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고 협력하는 올타리 안에서 평화와 행복, 안전의 꽃이 핀다고 믿고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문구처럼 ‘더디 가도 함께 가는 우리’라면 서로 잘 해낼 수 있을 것입니다.



## 초등학교 6학년까지 함께할 선생님

문하은

전라남도 진도군아이돌봄센터



저는 조도초등학교 3학년 1반 문하은입니다.

저는 7살 유치원 다니던 때부터 지금까지 〇〇〇 선생님의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아이 돌봄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 저는 일곱 살이어서, 한글을 몰라 읽고 싶은 책도 못 읽고, 엄마한테 편지를 쓰고 싶어도 글을 모르기 때문에 쓸 수 없었습니다.

저는 돌보미 선생님한테서 ‘아야어여’부터 한글을 배우기 시작하여 받침 있는 글자와 겹받침 글자, 그리고 연음까지 배워서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그림일기를 쓰면 글도 잘 쓸 수 있으며, 글씨도 예쁘게 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케치북에 그림일기를 쓰기 시작했

는데 1학년 여름방학 무렵까지 7권 정도를 썼습니다. 그것은 지금도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책을 많이 읽는게 좋다고 하셔서 책을 많이 읽으려고 노력한 덕분에 추천 독서 독후감을 쓰는 학교대회에서 상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선생님 덕분에 그림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것을 좋아하게 되었고, 이것이 매우 재미있습니다. 글을 배울 때는 어렵고 힘들었지만, 글을 알고 나니 많은 것이 쉬워졌습니다.

작년에 돌아가신 저희 할아버지께서는 교회 장로님이셨는데 제가 성경을 읽는 것을 보시고 아주 좋아하셨던 게 생각납니다. 선생님은 국어는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가 있는데, 듣기와 읽기는 다른 사람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다른 사람이 써 놓은 글을 잘 읽으면 되지만, 말하기와 쓰기는 본인 머릿속에서 나오는 것인니까 잘 듣고 잘 읽으면 쓰기와 말하기는 저절로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하기와 쓰기를 잘하려고 한답니다.

그리고 제가 돌보미 선생님께 배운 것은 피아노입니다. 7살 때부터 배운 피아노가 지금은 체르니 100번과 소나티네 그리고 하농과 찬송가를 4부로 치는 수준이 되었습니다. 매일 돌보미 선생님 댁에 갈 수가 없으니까, 선생님께서 안타까워하시면서 처음에는 교회에서 쓰던 전자 피아노를 우리집에 갖다 주셨습니다.

그러다가 소리와 견반을 누르는 감각이 피아노랑 다르다고 걱정하시더니, 제가 사는 조도의 교회 사모님께서 피아노를 필요한 사람에게 준다고 하니까 그것을 우리집에 갖다 주셨습니다. 진짜 피아노로 매일 연습하면서 선생님께 레슨을 받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쉬웠는데 갈수록 어렵지만 선생님은 피아노는 연습밖에 없으니까 열심히 치면 안 되는 것도 잘 되

니까 연습하라고 하셔서 열심히 연습하니까 정말 한 곡 한 곡 넘어가지고, 연습한 찬송가들은 잘 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는 바이올린과 장구와 리코더를 배우는데 피아노를 치기 때문에 음표와 박자를 아니까 배우는 것이 훨씬 쉽고 재미있습니다. 장구 선생님은 제게 빠르게도 잘하고, 천천히도 잘하고, 뭐든지 열정적이게 하고 하지 말라고 해도 뭐든지 될 때까지 연습한다고 칭찬하여 주셨습니다. 리코더 선생님은 텅잉도 잘하고 호흡도 좋고 잘한다고 해 주셨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이 연습이 중요하다고 말씀해 주신 덕분에 저는 연습을 많이 하였고, 칭찬을 받으며 더 잘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아이돌보미 선생님은 욕심이 많아 무엇이든지 가르쳐 주시려고 합니다. 실뜨기, 색종이 접기, 줄넘기, 코바늘로 뜨개질하는 법, 색칠하기도 하고 있습니다.

코바늘뜨기는 선생님이 레이스 뜨기를 아주 잘하셔서 커튼도 뜨고, 집 안 여기저기에 뜨개질하신 것으로 장식해 두는 것을 보고서 제가 가르쳐 달라고 졸랐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어려서 안 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제 친구도 엄마가 뜨개질을 가르쳐 주셔서 학교에 가지고 와서 뜨개질한다고 하니까 코바늘로 사슬뜨기하는 법을 가르쳐주셨습니다. 지금은 코바늘로 사슬뜨기를 아주 잘하고 있고, 사슬뜨기를 잘하면 긴뜨기와 짧은뜨기와 간단한 도안 보는 법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주산도 가르쳐 주셔서 저는 주산 놓는 것을 좋아하고 있습니다. 주산으로 더하기와 빼기를 하는 것이 신기해서 “선생님 주산 문제 주세요.” 하고 제가 먼저 달라고 합니다. 윗알 1개와 아래알 4개로 더하기와 빼기 그리고 많은 수라도 더하고 빼는 것이 참으로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숙제와

수학, 국어 문제도 풀고 있습니다.

방학 동안에는 아침부터 돌보미 선생님과 감사 일기도 쓰고, 방학 숙제도 하고 점심도 먹으면서 즐겁게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이랑 같이 있으 면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손주냐는 말입니다. 그러면 선생님은 “손주 라니요? 늦동이예요.”라고 말씀하신답니다.

제가 선생님과 함께하면서 느낀 점은 무엇이든 최선을 다하고 열심히 하면 진짜로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도 6학년이 될 때까지 선생님 과 함께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아이돌봄, 내 삶을 성숙하게 빛은 행복한 일자리



조미나

경기도 수원시아이돌봄센터

50대 중반 무렵 평생 있을 줄만 알았던 교육현장에서 은퇴를 한 후에 생각지 못했던 불안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무언가 내가 사회 구성원으로서 쓸모가 없어졌다는 팬한 열등감이 생겼다.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감도 떨어지고 전에는 느끼지 못했던 나이 들에 대한 두려움까지 생겨서 하루 하루가 고통스럽기까지 했다. 가장 나를 괴롭게 했던 것이 불면증이었다. 밤이 되면서부터 찾아오는 무기력함이 기어코 나로 하여금 밤잠을 설치게 만든 것이었다.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교사 신분으로서 시작했던, 아이들과 함께 했던 시간들이 너무나 그리웠다. 그때는 그런 시간들이 소중한 줄 몰랐는데 사라지고 나니 그 나날들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비로소 깨닫게 되었다. 아이들과의 소통뿐만 아니라 아이들 성장기에 함께 힘들

어하는 엄마들을 위로하며 나 역시 함께 성장하였던 너무나 귀하고 소중했던 시간을 내가 다시 경험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점점 나를 의기소침하게 만들었던 것 같다.

그러던 어느 날 수원시 아이돌보미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아이돌보미? 그게 무어지? 내용을 보니 양육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돌봄교사가 직접 찾아가 부모 대신 아이들을 돌보는 활동인 것 같았다. ‘아하! 교육현장이 밖에서 가정으로 바뀌는 것이구나….’ 그렇게 이해를 하니 무언가 마음속에서 내가 저 일을 꼭 해야겠다는 마음이 솟구쳤다. 내가 평생 해왔던 일, 내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바로 아이들과 함께 하는 일이다. 지금이라도 그런 일을 다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니 너무나 신나서 바로 접수를 하고 1차 서류통과, 2차 면접, 인적성검사까지 다 통과하고 드디어 수원시 아이돌보미가 되었다.

그런데 처음부터 나를 당황하게 만든 것은 아이돌보미 활동 현장이 그간 익숙하게 경험했던 교육 현장과 사뭇 다르다는 점이었다. 그도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각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돌봄 활동은 나에게는 낯선 환경이지만 아이들에게는 매우 익숙하고 친밀한 자신의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이기 때문이었다. 그러기에 나에게 익숙한 교실 안에서 아이들과 소통했던 예전 경험만을 가지고 돌봄 활동을 진행할 수는 없었다. 무언가 새롭고 발전적인 생각이 필요해 보였다. 예전에 새로운 교육활동을 만들 때처럼 생각하고 또 생각한 결과 나온 것이 아이들 중심의 돌봄 활동이었다. 그전에는 내가 아이들에게 무언가를 넣어주고 가르쳐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기에 나의 수업 시간은 항상 교사 중심적인 활동이었다. 아이돌보미로서의 나의 돌봄 활동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신기하게도 기존에

경험했던 아이들과의 교육활동은 무언가 간접적이고 피상적이었다면 아이돌봄 활동은 나에게 직접적이고 매우 구체적인 경험으로 다가왔다.

첫 번째로 연계되었던 가정은 한부모 가정으로서 6세 여아의 등원이었다. 사실 한부모 가정을 처음 경험하는 나였기에 아이를, 엄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다. 아이는 한부모 가정 안에서 경험하는 혼란과 두려움을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잘 있다가도 감정이 올라오면 울고 소리를 질렀다. 그런 이유로 아이가 엄마와 갈등이 있는 것도 알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가 알고 있는 교육 지식으로 어떻게 아이를 대해야 할까 머릿속으로 한참 생각하다 다 포기하고 아이를 안아주고 또 안아주기만 했다. 그렇게 한참 안아주면 아이는 저절로 화를 참고 언제 그랬느냐는 듯이 신발을 신고 씩씩하게 문을 열고 나간다. 그 모습이 하도 기특해서 칭찬을 엄청 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이가 나에게 말을 하였다.

“나는 선생님이 정말 좋아요.”

“왜?”

“선생님은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아요.”

나는 진심으로 그 아이가 고맙고 또 고마워서 더욱 힘껏 안아주었다. 이후 아이는 더 이상 울지도 않았고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 등등을 미주알고주알 나에게 얘기하면서 어린이집까지 즐겁게 갔던 기억이 있다. 언젠가는 다문화 가정인 한국 사정을 잘 모르는 엄마가 구직과정에서 행정적인 실수를 하였을 때 발견하고 도움을 준 적도 있었다. 그때 이용자가 어찌나 고마워하던지 뿌듯했던 경험이 있다.

다문화 가정이나 새터민 가정 등 평소에 경험할 수 없었던 가정으로 들

어가는 돌봄활동은 아이돌보미로서 가질 수 있는 큰 혜택이기도 하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새롭게 정착하는 타문화의 가정을 이해하고 배려할 수 있는 아주 유익한 시간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 가정을 이해하고 나니 길거리에서 예전보다 자주 보이는 피부색이 다른 아이들이 모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훌륭하게 성장하기를 마음속으로 바라게 되었다. 지금 까지 살아온 그 어느 시간보다 아이돌보미로서의 현재 삶이 나를 가장 성숙하게 만들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아이돌봄 활동은 아이들과 내내 시간을 같이 하기 때문에 식사를 차려주고 옷을 갈아입히는 등의 단순 보육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생각을 함께 나누고 소통해야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인 활동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내 말 한마디 한마디가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모범이 되어야 하기에 나는 항상 긴장하고 조심하면서 아이들과 대화한다. 가끔 조잘조잘 언어 천재를 만나면 나는 새로운 친구를 만난 듯 신나게 수다를 떤다. 그 시간이 얼마나 즐겁고 신나는 시간인지 시간이 후딱 가곤 한다. 50대 후반에 나보다 이런 새로운 친구를 만날 수 있다니 이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 게다가 아이들이 나와 이야기할 때가 가장 재밌다고 말해주니 나는 정말 행복하다. 너무 행복해서 눈물이 난다.



## 두 시간의 기적



오경숙

경기도 의정부시아이돌봄센터



마지막 인사를 하고 돌아서 신발을 신으려는데 갑자기 신발이 흔들려 보였다. 눈을 깜박였을 때 툭 하고 눈물이 떨어져 내렸고 뒤를 돌아보니 다정이 엄마의 볼에도 굵은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선생님 그동안 정말 감사했어요.”

“제가 감사했지요. 항상 배려해 주시고 저를 칭찬해 주셨잖아요. 건강히 지내세요.”

6년간 돌보았던 다정이네 집에서의 이별 장면이다. 다정이는 이별에 대한 슬픔은 아랑곳하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 돌아오면 엄마가 집에 있을 거라는 기대로 신이 나는 모양이다.

“왜 나만 선생님이 데리러 와? 다른 친구들은 엄마가 오는데”

가끔 볼멘소리로 친구들을 부러워했었다. 이제 엄마가 자신을 데리러

온다는 생각에 기분이 좋아 보인다.

다정이가 4살 때 처음 만나 초등학교 2학년이 되었으니, 올해로 6년째 이곳으로 출근한 셈이다. 유치원이 끝나면 놀이터보다 도서관에서 더 오랜 시간을 보냈다. 친구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자꾸 다투는 다정이를 아파트 단지에 있는 도서관으로 데려가기 시작했다. 처음엔 도서관에서도 서성거리더니 어느 날부터 책을 보기 시작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책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어 책을 읽는 습관이 자리를 잡았다. 다정이는 작년에 학교에 입학하자마자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 읽고 독서왕이 되어 상을 받았다. 물론 다정이의 성향도 있었겠지만 ‘어쩌면 내가 그런 성향을 잘 이끌어 준 것은 아닐까?’ 하는 자부심도 생긴다. 다정이의 꿈은 의사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되고 싶은 것은 ‘전도사님’이라고 한다. 신앙심이 깊은 부모님을 따라 종교 생활도 열심히 흥미롭게 하고 있다.

“우리 다정이 꼭 의사가 돼서 선생님 아프면 치료해 줘야 해.”

“네. 근데 선생님 전화번호 모르는데.”

“다정이가 좋아하는 다이어리 맨 뒤에 적어놓았으니까 꼭 문자 해.”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 무언가 마음이 혀전해지면서 눈물이 멈추지 않는다. 지나는 길에 아파트 놀이터가 보인다. 6년의 계절들이 스치고 지나간다. 봄이면 꽃잎을 따다 스케치북에 붙여 예쁜 카드를 만들었다. 여름이면 쭈쭈바를 입에 물고 더위를 이겨냈다. 가을에는 낙엽을 따다 동물 모양도 만들고 단풍 든 색색의 잎사귀 위에 열매를 엎어 뷔페 놀이도 했다. 겨울에는 눈사람을 만들고 이름도 붙여 주었다. 많은 추억이 주마등처럼 지나간다. 물론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상하게 서운했던 기억은 온데간데없어지고 행복한 기억뿐이다.

우연히 시작하게 되었지만 나 역시 이 직업을 가지면서 숨겨진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아이들을 만나기 전에는 그림을 잘 그린다는 것도, 만들기를 잘하는 손재주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그림을 그리고 만들기를 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이다. 또 평소에 목소리 좋다는 말을 많이 들어 구연동화 자격증도 가지고 있었지만, 그것 역시 기억 저편에 숨겨져 있었다. 아이들을 돌보며 내재 되어 있던 재능들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것과 합쳐져 나는 자신감 있는 아이돌보미가 되었다.

물론 시작할 때는 쉽지 않았다. 아이를 좋아한다는 이유만으로 잘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어른들은 이해할 수 없는 아이들의 감정의 파도, 그것을 극복하기 힘들었다. 작은 아이의 말로 상처를 받기도 했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 있는지 깨닫기 힘들었다. 하지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나이에 맞는 놀이 활동도 배우고, 상황에 따른 아이의 감정과 행동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이와 함께 현장에서 경험이 쌓이면서 비로소 진정한 아이돌보미가 되었고, 앞으로도 더 성장하리라 생각한다. 한편으로는 ‘이런 교육을 아이 낳기 전에 배웠으면 우리 아이들을 더 훌륭하게 키웠을 텐데.’ 하며 반성한다.

이제 또 다른 가정을 배정받을 것이다. 어떤 아이를 만날까 기대도 되지만 두려움도 있다. 10년의 경력으로 전문가가 다 되었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긴장되는 마음이다. 한 가정의 소중한 아이를 돌본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요즘같이 맞벌이 부부가 많은 시기 양육 공백을 대신할 우리 아이돌보미의 역할은 너무도 중요하다.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아이를 변화시키고 가정을 변화시키는 기적이 일어나기에 충분한 시간일 수도 있다. 운동화끈을 다시 매고 다시 뛸 준비를 한다.



## 잿더미를 딛고 다시 웃는 날까지

### 남위자

경상북도 청송군아이돌봄센터



3월 25일 저녁, 우리 지역은 안타깝게도 갑작스러운 산불로 인해 아이돌봄 이용자 가정, 아이돌보미, 아이돌봄센터까지 모두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우리 지역 전체를 잿더미로 만들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3월 26일부터 28일까지는 산불로 인해 초등학교에 임시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우리나라의 꿈나무들인 아이들은 인근 친척 집, 혹은 대피소로 뿔뿔이 흩어져 피신해야 했습니다.

그날 오후부터는 주위 산불 때문인지 해가 붉은빛을 띠기 시작했습니다. 점점 짙어지는 연기와 거센 바람 속에, 실시간 대피 문자가 쉴 새 없이 올렸습니다. 불안감은 극에 달했고, 사방에서 활활 타오르는 불길과 숨조차 쉴 수 없는 연기 속에서, 당장이라도 집을 집어삼킬 듯한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불길은 도깨비불처럼 이 산 저 산을 휘저으며 휩쓸고 지나갔고, 그 속에서 사람들은 우왕좌왕을 넘어선 아수라장을 겪어야 했습니다. 벌써 5일째 가 지나갑니다. 아직도 대피 가방은 머리맡에 그대로 있고, 옷도 입은 채로 잠이 드는 날이 이어졌습니다. 불안한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고,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하며 긴장을 놓지 못한 채 며칠을 보냈습니다.

그 며칠이 지나고, 우리는 다시 돌봄을 시작하며 아이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용자 가정 중 한 곳은 세 자녀와 부모님, 한 가족의 꿈이 산불로 송두리째 타버리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서로 위로의 말을 잊은 채 부둥켜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아이는 말했습니다.

“선생님, 우리 집에 불이 났어요. 내가 좋아하는 스프린키 장난감도 탔고요. 백설공주, 라푼젤 왕관도 타고 드레스도 다 탔어요.”

아이는 울상이 된 채로 제 품에 와락 안깁니다. 그 순간, 아무 말도 해 줄 수 없는 저의 마음은 찢어질 듯 아팠습니다.

“그랬구나, 불이 나서 선생님도 너무 슬프단다.”

세 살배기의 서툰 발음으로 “신발도 옷도 탔어요”라며 불안해하는 그 천진난만하고 여린 마음을 어떤 말로 위로해야 할지 몰라 무너져 내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어느 날, 어머님께서는 아이가 유치원에서 이유 없이 반항하고 등원을 거부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용자 가정이나 돌보미 선생님들의 역할도 중요하지만, 슬기롭게 대처할 여력마저도 부족한 현실에 모두가 우왕좌왕하며 좀처럼 안정을 찾기 힘든 상황입니다.

그 가정은 처음에는 대피소에서 생활했습니다. 하지만 다자녀 가정이라 불편함이 많아 며칠 뒤 친인척 집으로 옮겼고, 한 달이 지난 지금은 조그마한 여관방에서 지내고 계십니다. 일상은 마치 면 이야기처럼 느껴지고, 속절없이 흐르는 시간 앞에 이 또한 2차 피해가 아닌가 싶어 안타깝기만 합니다.

요 며칠 전, 어린이날이 다가왔습니다. 해마다 떠들썩하게 열리던 어린이날 행사도 모두 취소되었습니다. 작년 행사만 해도 걷기 대회, 사생대회, 장기자랑, 놀이기구 체험 등으로 아이들은 깔깔대며 웃음꽃을 피웠고, 숨이 찰 정도로 열띤 경쟁이라도 하듯 휘돌아 내려오는 미끄럼틀을 쉴 새 없이 오르며 하염없이 놀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땀방울 맷힌 얼굴로 기쁨에 젖어 해맑게 웃던 아이들의 모습은 올해는 그저 추억으로만 남게 되었습니다. 손꼽아 기다리던 어린이날마저 무심히 지나쳐야 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저희 마음은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하지만 새까맣게 변해버린 들판과 뒷동산에도 언젠가는 꽃이 피고, 새가 울고, 소나무가 우렁차게 흔들릴 날이 오겠지요.

가끔 아이들과 그런 이야기를 나누며 작은 희망을 전해봅니다. 만약 신이 계시다면, 아이들의 두려움과 힘겨움이 하루빨리 치유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이시여, 부디 아이들의 꿈과 희망이 꺾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옵소서.”

잿더미 속에서도 새싹이 돋아나듯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겨봅니다.



## 홍보 요정으로의 출발



이 한 순

인천광역시 동구아이돌봄센터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늘 아이들과 함께였다. 선교원 교사로 시작해 어린이집 교사, 원장, 유치원 방과 후 교사, 그리고 지금은 아이돌보미로 일하고 있다. 이 시간들이 단순한 ‘직업’이나 ‘일’이 아닌 내 인생 그 자체였다는 사실을 문득 깨닫고 나면 마음이 뭉클해진다.

사람은 살면서 여러 가지 역할을 경험한다. 누군가의 자식으로, 누군가의 부모로, 친구로, 이웃으로, 다양한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 하지만 그중에서도 누군가의 하루, 아니 인생을 따뜻하게 바꿔줄 수 있는 역할은 얼마나 될까? 나는 감사하게도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자리에 서 있었다.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는 장면이 있다. 놀이 활동 중 한 아이가 내게 다가와 “예쁜 선생님, 이거 같아해요.” 하며 놀잇감을 들이밀었다. 그 순간부터 나는 그 아이에게 ‘예쁜 선생님’이 되었다. 집에 돌아간 아이는 부모

님께 나에 대해 자랑했고, 학부모님은 아이가 얼마나 나를 좋아하는지 전해주셨다. 짧은 말 한마디가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 그 순간 알게 되었다. 아이들이 때로는 옻고 폐를 쓰고 고집을 부리기도 하지만, 그런 모습조차 사랑스럽다. 그 아이들과 함께 웃고, 옻고, 자라는 모든 시간이 나에게는 소중한 선물이었다. 물론, 쉽지 않은 날도 많았다. 하지만 그만큼 보람도 컸다.

나는 항상 아이들이 따뜻한 사랑을 받으며 자라기를 바랐다. 사랑받으며 자란 아이가 결국에는 사회에 빛을 주는 사람으로 성장하리라는 믿음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맞벌이 가정이 늘어나며 육아에 공백이 생기고, 부모들은 일과 양육 사이에서 점점 지쳐가고 있다. 어떤 아이는 돌봄의 손길조차 받지 못한 채 불안한 하루를 보내기도 한다. 나는 아이돌보미로 일하며 가정마다 안고 있는 어려움이 얼마나 다양한지를 직접 체감했다.

지금 내가 돌보는 한 가정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어머니가 종일 근무를 하셔야 했다. 아이 걱정 없이 일할 수 있다는 사실에 어머님은 안도하셨고, 나 또한 아이와 함께하는 시간이 더욱 소중해졌다. 나는 아이를 유모차에 태우고 집 근처를 산책하곤 했다. 그러던 중, 근처의 아이돌봄센터에 들르게 되었는데, 그곳 선생님들의 따뜻한 인사와 미소는 아이에게도, 나에게도 큰 위안이 되었다. 처음에는 낯을 가리던 아이가 점점 손을 흔들고, 웃으며 인사를 나누게 되었을 때, 나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이 차올랐다.

산책 중 마주치는 부모들 가운데 육아에 지쳐 힘들어 보이는 분들이 종종 있었다. 그럴 때면 조심스럽게 다가가 말을 걸었다.

“혹시 아이돌봄서비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순간이, 나에게는 작은 용기이자 새로운 시작이다.

아이돌봄센터에 부탁드려 받은 홍보지와 작은 선물을 들고, 나는 산책 길에서 만난 부모들에게 아이돌봄서비스를 알리기 시작했다. 그런 활동 속에서 나는 다문화 가정의 부모들이 정보 부족과 언어 문제로 아이 양육에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그때부터는 ‘더 많은 가정이 돌봄을 통해 도움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간절한 마음이 들기 시작했다. 그렇게 ‘홍보 요정’이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고, 나는 그 이름이 꽤 마음에 들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수교육을 받던 중 ‘인천광역시 아이돌봄 홍보단’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다. “많은 아동들이 아이돌봄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아이돌봄 홍보단 활동, 함께 하실래요?”라는 문구를 보는 순간 가슴이 뛰었다. 고민 끝에 바로 센터에 연락했고, 홍보 교육에 참여할 수 있었다.

교육을 받으며, 나 자신이 아이들을 참 좋아하고 잘 돌본다고 생각해 왔지만, 다른 선생님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더욱 큰 감동을 받았다. 어떤 선생님은 아이의 치료와 관련된 문제에 직면한 가정에서, 또 어떤 선생님은 우울증을 겪는 어머니를 돋는 과정에서, 단순한 돌봄을 넘어선 깊은 사명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 모습을 보며, 나 또한 더 나은 돌보미 선생님으로 성장하고 싶다는 다짐을 하게 되었다.

나는 믿는다. 아이돌봄은 자격증보다 중요한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아이의 마음도, 아픔도 자연스럽게 느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그 사랑은 아이의 웃음으로, 가정의 안심으로, 나아가 사회의 따뜻한 변화로 돌아온다.

이 작은 돌봄이 아이의 오늘만이 아닌, 내일을 바꾸는 씨앗이 될 수 있

다고 믿는다. 부모님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고, 아이가 사랑받으며 자랄 수 있는 사회. 그리고 그런 사회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역할.

그래서 오늘도 나는 ‘홍보 요정’이라는 이름을 자랑스럽게 달고, 아이들과 함께 웃고, 울며, 성장하고 있다. 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따뜻한 울림이 되기를 바라며, 이 작은 기적을 계속 만들어가고 싶다.



## 17년 여정을 함께한 아이돌봄

고영임

부산광역시 사상구아이돌봄센터



2009년, 사상구에 아이돌봄지원사업이 처음 생겼을 때 나는 지원인력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다. 어느새 시간이 흘러 17년째, 전담인력으로 일하고 있는 지금까지도 이 일이 내 삶의 중심이다. 처음 시작할 당시에는 시스템이 없어 가정마다 일일이 방문해서 서류를 받고, 이용 요금도 수기로 계산하여 입금을 받았던 일이 기억에 남는다. 몸은 많이 힘들었지만, 이용자들과 얼굴을 맞대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민원은 거의 없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다.

기억에 남는 이용자들 중 한 어머니는 출산 후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면서 아이돌봄서비스를 처음 이용하게 되었는데, 소득 변동이 생겨 본인부담금이 올랐지만 지금까지도 계속 이용하고 계신다. 모니터링을 할 때마다 서비스에 대해서 매우 만족해하시고, 이용 요금이 부담되어도 다

양한 장점이 많아서 계속 이용하고 있다고 말씀해주셨다. 아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되어 서비스를 마무리할 예정이라는 이용자는 직장이 창원이라 그동안 늘 퇴근 시간이 교통 사정으로 정확하지 않아 아이돌보미 선생님께 미안한 마음을 갖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선생님은 늘 웃으며 아이를 맡아주셨다고 한다. 덕분에 어머님은 아이돌봄지원사업에 대해 관심이 커서 부산시 전체 이용자 간담회나 수기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계신다. 연차까지 내면서 참석하시고 작으나마 목소리를 내주시는 이런 분들 때문에 사업이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하고 그 진심 어린 참여는 제도 개선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형편이 어려웠던 한 이용가정에 돌보미 한 분이 세 명의 아동을 돌보셨다. 그 아이들이 모두 초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돌봄활동을 하시다, 이 가정을 끝으로 퇴사하셨다. 오랫동안 한 가정을 돌보다 보니 나이가 들어 다른 가정을 돌보는 것이 부담스럽다고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자기한테 온전히 하루를 바치고 싶다고 하셔서 더 이상 붙잡지는 못했다.

이처럼 이용자와 아이돌보미 선생님 간에는 많은 사연과 정서적 유대가 형성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엔 사소한 오해로 서운함이 쌓여 교체를 요청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서로 이해하고 배려하면서 오랜 시간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이용자와 돌보미를 연계할 때는 선생님의 성향과 이용자 특성을 잘 고려하여 진행하려고 하지만, 서로 힘들거나 맞지 않을 때는 센터로 꼭 연락을 달라고 한다.

믿고 맡길 수 있게 되어 늦게까지 일을 할 수 있어 좋았다는 맞벌이 가정, 이용시간을 늘려주어 큰 도움이 되었다는 가형 이용가정, 혼자 아이를 키우며 시스템 신청이 어려웠는데 센터에서 도움을 주었다며 감사해한

한부모 가정 등… . 여러 가정의 이용자들이 기억에 남는다.

아이돌보미 선생님에게 직접 말씀드리기 어려우니 센터에서 대신 전달해달라고 요청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선생님과 너무 익숙해진 아이들이 선생님을 함부로 대하는 모습을 보면 다른 선생님으로 교체해달라는 등 민원을 제기하는 이용자들도 가끔 있었다. 이런 경우 이용자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으며 진짜로 원하는 것을 찾아내어 해결해 드리면 오히려 더 가까워진 분들도 계셨다. 36개월 이하 아동에 대해서는 CCTV 설치를 되도록 권유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상황을 확인하고 중재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최근에는 출산율 저하, 부모의 육아 단축 제도, 다함께돌봄센터나 늘봄 학교 등에서 늦게까지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자는 다소 줄었다. 이용자들과 연계하면서 느낀 점은, ‘좋은 이용자’나 ‘좋은 선생님’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입장을 조금만 바꾸어 생각하면 누구나 서로에게 정말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아이돌봄지원사업은 이용자 요구에 맞춰 개별 돌봄이 가능하고, 갑작스러운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이 있지만, 아이돌보미 선생님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요구나 이용자의 사정으로 인해 일이 취소될 때 급여나 처우에서 아쉬움이 남는 경우도 많다.

그동안 연계 업무를 하면서 쉽지 않은 순간도 많았지만, 누군가에게 꼭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으로 묵묵히 걸어왔던 것 같다. 이 일을 하면서 가장 깊이 느끼는 것은, 아이의 미래를 바꾸는 힘이 우리가 하는 돌봄 속에 있다는 것이다. 때론 사소한 친절 하나가, 아이에게는 평생 기억될 따뜻한 온기로 남기도 한다. 우리는 한 아이가 돌봄 속에서 안전하게 성장하고,

한 부모가 안심하고 생계를 유지하며, 한 가정이 웃음을 되찾는 그 순간들을 이 사업 안에서 수도 없이 목격한다. 이 사업은 단순히 아이를 돌보는 것을 넘어, 가족 구성원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다고 확신한다.

출산율 저하와 양육 공백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된 지금, 아이돌봄서비스는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할 좋은 제도라고 믿는다. 때문에 나는 퇴직 후 아이돌보미 선생님으로 활동하며 현장에서 아이들과 가정을 직접 대면하고 싶다는 생각도 해본다.

한 아이가 꿈을 키우고, 한 부모가 삶을 꾸려나가며, 한 가정이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앞으로 이 제도가 한 아이, 한 가정의 내일을 응원하는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길 바라며 정부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도 줄어 출산율이 높아지길 기대해 본다.



“그때, 네가 이랬었네.”

이윤주

서울특별시 성동구아이돌봄센터



낯설고 긴장된 마음으로 첫 출근을 하던 날이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9년이 지났다. 입사 면접도 얼떨결에 보고, 합격 소식에도 얼떨떨해했던 나는 그렇게 아이돌봄지원사업과 인연을 맺게 되었다.

아이돌봄서비스는 1년 내내 운영되기 때문에 정신을 차릴 틈도 없이 한 해 한해가 흘렀다. 새해가 시작되면 전년도 정산 업무와 새로운 사업 준비로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가 어느새 연말이 되어 있기 일쑤였다. 누군가 내게 장기근속의 비결을 묻는다면, 그건 바쁜 정산 덕분이라고 말할 것이다.

전화 업무도 적지 않다. 특히 출산한 지 얼마 되지 않은, 감정이 예민한 엄마들을 응대하는 일은 쉽지 않다. 정기서비스가 연결되기까지 대기 기간이 길고 연계가 가능한 돌보미도 없으면 마음이 착잡해지고, 더욱이 갑

작스럽게 돌보미 선생님의 사정으로 서비스가 중단되기라도 하면 난감한 상황이 발생한다.

“책임지고 빨리 다른 선생님을 연결해야죠!”

때론 다급한 목소리로, 때론 큰 소리로 항의하는 이용자들을 마주하며,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애쓰지만, 속수무책으로 민원을 마주할 때가 있다.

최근에는 낮은 목소리로 “당신이 내가 원하는 답을 하라.”라고 반복 요구하는 민원인 때문에 힘들었다. 차라리 고성이 더 나은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감정 소모가 컸다.

시스템이 개편되기 전, 돌보미 선생님들이 매월 활동일지를 손수 들고 센터를 방문했다. 활동일지를 일일이 대조하고 확인하느라 야근을 밥 먹듯이 하던 그 시절. 종무식이 끝난 12월 31일 밤에도 사무실 불을 끄지 못하고 일지 확인을 하던 기억이 난다. 야근수당 없이도 웃으며 함께 했던 팀원들, “수고 많아요” 하며 과자를 사 오시던 선생님, 손수 삶은 감자를 건네주시던 돌보미 선생님들의 따뜻한 손길이 있었기에 가능한 시간이었다.

특히 기억에 남는 일이 하나 있다. 영아종일제 활동일지를 소중히 여기던 한 가정이 있었다. 문서 폐기 전에 꼭 돌려받고 싶다고 하셨기에, 따로 묶어 보관해 두었다. 몇 년 후, 폐기 시점이 되어 연락을 드렸더니 이용자분이 아이와 함께 센터를 방문했다.

“그때, 네가 이랬었네.”

어머님은 일지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웃으며 말씀하셨다. 초등학생이 된 아이도 자신을 돌봐준 선생님의 손길을 글로 읽으며 엄마와 함께 추억에 잠겼다.

“아이돌보미 선생님 덕분에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었어요.” 이용자가 감사의 말을 전하던 그날, 나 역시 이 일의 가치를 다시금 느끼게 되었다.

대중매체에서 종종 보도되는 불미스러운 일들 때문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의 이미지가 실추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선생님들은 기본적인 수당 조차 보장되지 않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그리고 성실히 자신의 자리를 지켜주고 계신다. 그분들은 단순한 ‘돌봄’을 넘어, 가정과 사회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베풀목의 역할을 맡고 계시다고 말할 수 있다.

시간이 흐르며 세대도 바뀌었다. 처음 입사하여 응대하던 아기 엄마들이 대부분 80년대생이었다면, 이제는 거의 90년대생이 주를 이룬다. 나 또한 70년대생으로서 세대 간 소통의 변화를 피부로 느낀다. AI 자동연계 시스템이 도입된 이후 서비스 이용은 빨라졌지만, 민원도 그만큼 늘었다. 안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연계된 서비스에 대해 “이건 내가 원하던 게 아니다.”라며 불만을 표시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또한 요즘 부모들은 플랫폼 문화에 익숙해 돌봄을 단순한 ‘서비스’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해져서, “아이가 운다.”, “선생님이 너무 말이 없다.” 같은 피드백을 통해 첫날부터 별점을 매기려 하기도 한다. 처음 보는 낯선 선생님을 보고 아이가 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건만, 그걸 받아들이는 여유는 점점 사라지는 듯해 아쉬운 마음도 듈다.

돌보미 선생님들 또한 연세가 드시면서, 양육자와의 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요즘 부모들은 사적인 대화를 원하지 않는데, 오히려 선생님들의 지나친 관심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는 것 같다. 돌봄의 방식과 사람 사이의 거리를 다시 고민하게 만드는 변화이다.

그럼에도, 누군가는 아이를 돌보고, 누군가는 그 현장을 연결하며 지켜내는 일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믿는다. 힘들고 복잡한 민원이 많은 하루에도, 결국은 사람에 대한 믿음과 따뜻함이 이 일을 이어가게 만든다.

지난 9년, 힘들기도 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감사와 배움이 있었다. 때론 지치고 흔들릴 때도 있었지만, 아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수많은 사람들 덕분에 나는 꿋꿋하게 이 자리에 서 있다. 앞으로도 아이돌봄의 의미와 가치를 지켜나가기 위해, 나의 자리에서 조용히 최선을 다하고 싶다.



## 내게는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어려운 일일 수도

정숙영

울산광역시 남구아이돌봄센터

휴대폰 어플이나 컴퓨터 사용이 너무 일상적인 2~30대 전담인력 입장에서 돌보미 선생님들이 매일 작성하는 일지는 그야말로 식은 죽 먹기다. 벼른 몇 번만 누르면 끝나는 일로 10초도 소요되지 않는 일이다.

그러나 센터로 가장 많이 들어오는 문의는 자동로그인이나 일지작성이 안 된다는 아주 기초적인 일들이다. 전담인력으로 입사 후 가장 힘들었던 것은 매일 간단하고 쉬운 일을 반복적으로 설명하는 것이었다. 주변에 그런 고민들을 이야기할 때면 “너희 엄마 일이라고 생각해라.”라는 비슷한 조언이 돌아올 뿐이었다.

입사한 지 5~6년차가 되었던 날로 기억한다. 그날도 어김없이 어플로 그인이 되지 않는다고 같은 돌보미 선생님이 오전에만 5번 넘게 전화를 하셨다.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하는 의문이 피어오르지만, 똑같은

설명으로 응대할 수밖에 없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도 전화로 도와줄 방법도 없었다. 그렇게 오전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다.

점심시간을 막 앞두고 선생님 한 분이 팔기 한 박스를 들고 센터로 찾아오셨다. 순간적으로 ‘아, 점심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분은 오전 내내 통화를 한 그 선생님이셨다. 그분 댁은 센터에서 버스로 40분 정도 걸리는 먼 거리에 있었다. 선생님을 보고 든 생각은 ‘아 죄송하다. 좀 더 상세하게 설명드릴걸….’하는 간단한 마음이 아니었다. 그 일은 ‘공감과 이해’에 대한 나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었다.

‘나에게는 버튼 하나만 누르면 되는 쉬운 일이, 누군가에게는 버스를 타고 한 시간을 달려가 해결하고 싶을 만큼 어렵고 고민되는 일일 수 있구나.’하는 깨달음.

리액션이 좋고 외향적인 나는 가족이나 친구관계에서 그리고 사회생활을 하면서 표면적으로 상대방에게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이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 하지만 사실 그 모든 것은 내 기준에서, 내 가치관에서 판단하는 것이었지 진심으로 상대방의 상황을 역지사지하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었으며, 진정한 공감을 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나는 아예 모르고 있었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모든 것이 디지털화되고 있는 세상에서 세대 간의 격차를 공감을 통해 조금이라도 좁혀서 기성세대가 보다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했다. 그 일이 있은 후에도 여전히 같은 말을 반복하고, 보다 더 쉽게 설명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우리의 일이 고되고 어려운 순간도 여전히 존재하지만, 나는 이전과는 다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보게 되었다. “정말 그럴 수도 있구나.”하고 말이다.

2016년, 전담인력으로 입사한 후 가장 놀랐던 일이 돌보미 선생님들이 한땀 한땀 손으로 쓰신 한 달 치 활동일지를 받아, 전담인력이 하나하나 수기로 입력하여 급여계산을 하는 것이었다.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사업 전반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두 눈으로 지켜보았고, 그에 따른 과도기도 함께 겪었다. 아이돌봄사업의 주인공은 이용자와 돌보미 선생님이라고 늘 말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함께한 전담인력의 뿌듯함도 이루 말로 할 수 없다.

어느덧 시간이 지나 물오른 9년 차 직원이 되었다. 그 사이에 아이돌보미 수당이 조금씩 올라 쳐우도 개선되고 있고, 그와 더불어 돌보미들의 전문성과 효능감도 올라가고 있는 것이 현장에서 느껴진다. 마치 우리 엄마가 멋진 사회인으로 발전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고령화 사회지만 신체가 건강해지고 기대수명도 늘어남에 따라 은퇴를 앞둔 분들은 60세 은퇴가 너무 빠르다고 느낀다고 한다. 사회적으로 ‘나의 쓰임새’에 대하여 고민할 시점에 아이돌보미로서 직업의 자긍심을 느끼고 존재할 수 있음에 이 사업의 존재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한다.

“선생님 제발 빈손으로 좀 오세요!!”

아무리 당부드려도 센터를 방문하는 선생님들은 늘 한 아름 먹을거리 를 손에 들고 오신다. 아마 딸 같은 마음으로 센터 직원들을 생각하시기 때문일 것이다. 특히나 우리 울산 남구는 250명이 넘는 선생님들이 계시기에 처음 입사했을 때 선생님들의 이름과 특징을 기억하는 선배들을 보면 정말 신기하다고 생각했었는데 나조차도 오래 일을 하다 보니 별다른 노력 없이도 자연스럽게 기억이 난다. 기억력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고 애정이 쌓임에 따라 자연스러운 것이 아닐까 싶다.

현장에 있는 이용자와 아이돌보미의 애정도 엄청나겠지만, 일련의 사건들을 함께 겪으며 성장해가는 센터 인력들의 사업에 대한 애정도 날이 가면 갈수록 늘어나고 있음을 느낀다.



발행일 2025년 8월

발행처 한국건강가정진흥원

발행인 박구연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73 (남산스퀘어빌딩) 21층

전화 02-3479-7600

홈페이지 [www.kihf.or.kr](http://www.kihf.or.kr)

기획·편집 아이돌봄사업부(아이돌봄중앙지원센터)



이 책은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받는 저작물이므로 이책에 실린 글과 이미지의 무단 전재와 무단 복제를 금합니다.

이 책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용하려면 저작권자와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합니다.